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문명의 혁명적 발전으로 삶은 편해졌지만 젊은이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희망은 사라지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헤쳐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2월 13일 (토) 제 157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축복과 저주 동시에 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 젊은 세대 공통적 문제점 분석 보도

영화 "헝거 게임" 속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나이 지긋한 기득권층의 유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소셜이나 시 같은 문학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말처럼, 오늘날의 청년 소설은 젊은 세대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을

직접 살해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한다 (Young, gifted and held back: The world's young are an oppressed minority. Unleash them).

전 세계 인구의 25%(18억 명)는 15-30세 젊은이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 세대는 전례 없는 행운을 타고났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천연두나 마오쩌둥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교육도 잘 받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아이티의 어린이들도 1960년대 이탈리아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여성이나 동성애자라면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자유를 누린다. 현재의 기술 발달 추세라면 100세까지도 살 것이다. 그런데도 젊은 청년들은 항상 투덜댄다.



현대 젊은이들은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유는 충분히 많다.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가 뺏은 짐을 맞는 세대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젊음의 비애를 나누고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살만한 집을 찾는 건 너무 어렵다. 어른이 되는 길 자체가 복잡하고 길어졌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기성세대를 옹호하는 정책 탓이 크다.

작하고 일하는 습관을 키워나갈 시점에 게을러지는 건 치명적이다. 20대에 실업자였던 이들은 첫 월급의 출발점이 낮다 보니 50대가 될 때까지 더 적은 연봉과 그로 인한 불행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 문제부터 들여다보자. 세계 많은 나라의 고용법은 기존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법은 현재 일자리를 가진 나이 든 이를 보호하고 새로운 고용을 더디게 만든다. 피해는 젊은 사람들에 돌아간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의 실업률은 나이 든 이의 두 배에 다다른다. 사회생활을 시

집값 또한 젊은이들에게 불리하다. 주거공간을 얼마나 더 지을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다. 조망권과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을 저지할 이유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도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월세와 집값은 연봉 이상 속도를 앞지른 지 오래 됐다.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은 이른바 "집 없는 세대"라고 할 정도다. 미국의 젊은 여성이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얹혀사는 비중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다.

<3면으로 계속>



예측불가 미대선 경선...최종주자 4인방 압축

미 언론, 민주당 힐러리와 샌더스, 공화당 크루즈와 루비오 예측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테드 크루즈와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뉴햄프셔는 다르다. 미국 대선 경선 두 번째 관문인 뉴햄프셔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일, 매사추세츠대학-로웰/7뉴스의 뉴햄프셔 여론조사(1월31-2월2일·민주 유권자 415명, 공화 유권자 502명) 결과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63%의 지지율을 기록해 30%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에 무려 33% 포인트 앞섰다. 배를 넘는 지지를 격차다. 게다가 뉴햄프셔는 샌더스 의원의 지역구인 버몬트 바로 옆 주로, 그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38%의 지지율로 14%에 그친 크루즈 의원을 24% 포인트 앞섰다. 직전 CNN-WMUR의 여론조사 때(트럼프 30%, 크루즈 12%)보다 지지율 격차가 6% 포인트 더 벌어졌다. 아이오와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크루즈 의원의 지지율이 2% 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8% 포인트나 올랐다.

여론조사의 향방대로 경선이 흘러간다면 버니 샌더스 의원과 도널드 트럼프는 뉴햄프셔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 주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루비오 의원의 약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까지 미국 대선은 예측불가다.

민주당

샌더스와 힐러리가 마침내 얼굴을 마주보고 격돌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4일 열린 MSNBC TV 토론에서 불꽃을 튀기며 싸웠다.

첫 경선 관문인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초반빙 승부를 벌인 두 주자가 두 번째 경선자인 오는

9일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부딪힌 이번 토론의 결과를 4개의 주제로 살펴본다:

사형제도

클린턴은 이날 토론에서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방 사법체계를 훨씬 더 신뢰"하지만 각 주에서 집행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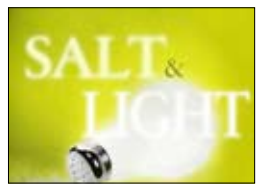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파는가?



7면
고난의 신학: 욕기에 대한 묵상 이승현 박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선교의 향 송종록 목사



14면
세계종교 문화뉴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6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 인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6년 5월 13(금) - 16(월)
2) 고시 장소: Philadelphi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말라기 4:1-6
(2) 신약 주해 - 고린도전서 2:1-5
(3) 논문 제목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4) 설교 본문 - 신약: 로마서 1:18-32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설기교사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③ Letter Size(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④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며,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⑤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 이내).

⑥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 주를 사용 할 것.

⑦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 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6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증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00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6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0회 총회기간(5월17일-20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3일-16일 총회고시장소)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를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Rev. Yun Joon Hur) / Email: jameshur63@hotmail.com
NY Cell: (718)637-1470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김태업목사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파는가?

타임, 물건 아닌 '브랜드 이미지·선호도' 파는 슈퍼볼 광고 효과 분석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0회 슈퍼볼(Super Bowl)은 덴버 브롱코스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프로 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경기만큼이나 경기 중간에 TV로 방송되는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LA타임스는 시장조사기관 '칸타르 미디어'를 인용해 슈퍼볼 광고총액이 2010년 2억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4700만 달러로 올랐다고 전했다.

올해는 3억7700만 달러로 예상된다. 30초 분량의 TV 중계 광고 단가는 최고 500만 달러로 나타났다. 1초에 16만6천 달러인 셈이다. 제50회 슈퍼볼 주관 방송사인 CBS로 지난해 11월 이미 슈퍼볼 광고 시간을 모두 완판 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해 11월 초에 광고가 완판 됐을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슈퍼볼 광고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시사주간지, 타임은 광고주들은 물건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와 선호도를 높이고자 거액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다(Why Super Bowl Advertisers Are OK That the Commercials Don't Boost Sales). 다시 말해서, 슈퍼볼 광고가 가시적인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올해 슈퍼볼 '광고 전쟁'에 참여한 기업은 버드와이저와 아마존, T-모바일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50여개다. 한국에서는 현대·기아 차와 LG전자가 광고를 내보냈다.

기업들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슈퍼볼 경기에 광고를 집어넣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광고 효과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열린 49회 슈퍼볼을 중계 방송한 NBC의 시청률은 49.7%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 역시 미국 내 TV 시청자수는 1억1500만명이 달하고, 전 세계에서 10억명이 TV 앞에서 슈퍼볼을 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슈퍼볼 최종 수혜자는 브랜드 이미지 판 기업 교회공동체 '이미지와 선호도' 반성 제기

미국 시장조사기관 '브랜드 에즈'는 지난해 슈퍼볼 광고를 본 시청자 3만744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슈퍼볼 광고 이후 브랜드 구매 의사가 평균 6% 올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또 지난해 슈퍼볼 광고에 참여한 57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비롯한 48곳이 기대 이상의 광고 효과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슈퍼볼 광고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시청률 때문만은 아니다. 타임지는 "광고주들이 물건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거액을 아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슈퍼볼 광고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로 기업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다. 아카데미 영화제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세계 영화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인터넷과 언론 매체를 통해 슈퍼볼이 끝나고 그해 최고의 슈퍼볼 광고를 꼽는 '슈퍼 매거진'이 이뤄질 정도로 슈퍼볼 이후에도 광고 효과가 지속한다는 점도 기업들을 광고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광고가 화제를 모을 경우 소비자들의 소문을 타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광고비의 본전을 뽑고도 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임의 분석처럼, 광고주들은 물건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와 선호도를 높이고자 거액을 아끼지 않는다. 슈퍼볼 광고가 가시적인 상품 판매로 이어

지지 않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곧바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 자극으로 직결되지 않아도,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슈퍼볼 광고가 효과 노릇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단순히 슈퍼볼 선데이 반쪽 특수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단판 승부인 슈퍼볼과 막간 짧은 '영화제'와 같은 슈퍼볼 광고 시간에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광고를 출품해,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그리고 선호도를 알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복음을 알리야 되는가라는 물음이 있어야 한다.

이미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마케팅 원리(마5:13-16)를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기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교회는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세상에 죄악이 확산돼 사회 전체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듯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는 커뮤니티의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시론

“참된 신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민경업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군대는 장난이 아니다!” 이런 악 소리 나는 훈련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천천히 군인이 되어간다.

최근에는 남자 연예인들이 “귀신 잡는” 해병대에 입대하여 7m 위의 해상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카메라가 지켜보던 말도 걸먹은 기색이 역력하게 하얗게 질린다. 보는 나조차 간담이 서늘해지고 애간장이 탄다. 그런가 하면 지상으로부터 15m와 30m에서 낙하하는 훈련을 한다. 그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누구라도 오금이 저린다.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온 몸을 맡기고 걸어 내리게 한다. 시범을 보이는 조교가 당당하게 걸어내려 올수록 다리조차 펴질 못하는 극한 체험 앞에서 한없이 외소해지는 남성들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낀다. 카메라는 훈련들이 얼마나 멀뚱 멀뚱 극한 체험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면서 교관들이 주문처럼 외워대는 “해병대는 겁이 없다!”는 구호를 따라하게 한다. 그러면서 무섭냐고 묻는다. 무서우면 해병이 아니라고 압박하기까지 한다. 정 무서우면 해병대의 빨간 명찰을 떼라고 한다. 누구나 해병이 된다면 해병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강박을 주면 자기 자신에게 세뇌가 되는지 긴장된 근육들이 풀리나 보다. 아니, 풀리지 않더라도 밀어서 뛰어내리게 한다. 그렇게 서서히 적응하고 아주 천천히 해병대가 되어간다.

나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오늘날 신앙 훈련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의 결기라고도 생각했다. “참된 신자는 겁이 없다!” 당연히 참된 신자는 겁이 없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더욱 분발한 사실을 이렇게 전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빌1:14). 어릴 적 이기풍 목사의 일대기 영화 ‘순교보’를 본 기억이 생생하다. 이 목사는 사무엘 마펫 평양신학교 교장의 턱에 돌을 찍어서 흉터를 났던 유명한 강파였다. 그런 그가 죽을병에 걸려 예수님을 만나 신자가 되었고 결국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된다. 그리고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는다. 제주도도 가서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제주도민들에게 자기 지질렀던 그런 핍박과 환란을 고스란히 당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로 교회들을 세우고 제주도의 복음화에 일등공신이 된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그들의 모진 고문에 희생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겁 없이”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런 유의 선배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신앙의 길이요 나 역시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시대에는 핍박을 이기는 영적인 해병대 정신이 필요했다.

사탄은 교활하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핍박의 약탈이 먹히지 않으니 유혹이라는 더 간교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핍박을 이긴 기독교가 유혹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혹은 핍박보다 한 수 위 사탄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핍박을 이긴 교계 지도자들이 물질과 명예와 이성의 3대 유혹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 지금 같은 풍요의 시대, 기독교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된 신자는 겁이 없다”는 식으로만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은 “참된 신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구호로 바꾸어 외쳐야 하지 않을까. 전자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십수명의 죄 없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죽인 1999년의 컬럼비아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아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가운데 용감했던 소녀 캐시 버넬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외쳐야 할 것이다.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핍박을 이기는 정신력뿐만 아니라 유혹 앞에서 초연한 영적인 해병대 정신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진정한 신자라면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3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아직도 삶 속에서 부닥치는 유혹들을 이겨내며 어려운 목회현장을 지켜내는 이들이 더 많아서 감사하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축복과 저주 동시에 받고 있다!

(1면에서 계속)

또한 젊은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가 열려 있고 발목을 붙잡는 것이 없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 세대와 달리 세계를 방랑한다. 더 선진국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세계 GDP는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문을 여는 건 어렵다. 요즘의 선진국은 이민자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 국가 내에서도, 중국의 호구제는 대도시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들에게 차

별을 가한다. 인도도 주를 옮기면 공공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UN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진보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업을 찾으려 대도시로 옮기면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국가가 대도시 인구를 줄이려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정책은 이주할 준비가 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영향을 끼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는 점점 많은 예산이 연금과 의료 정책에 쓰인다. 독일과 헝가리 등에서는 재정의

흐름이 아예 젊은 사람들에서 나이 든 사람들로 흐르고 있을 정도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부유하다는 걸 고려하면, 이런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18세-34세 투표율이 20%로 65세 이상의 투표율(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인도네시아도 상황은 비슷하고, 일본은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온라인 청원은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면 투표가 중요하다.

이는 자원의 낭비기도 하다. 현재 젊은 세대는 곧 핵심 생산인구로 자리 잡을 사람들이다. 인도 같이 젊은 노동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점점 나이 들고 있는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 연금을 낼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한다. 게다가, 억눌린 젊음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일자리가 없고 고통 받는 청춘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고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결국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들이 무얼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나, 쉽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주고, 규제를 없애고 이동을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와 모든 부모, 조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스티그마(3)

매사에 웃는 목회란 없다. 웃을 일도 있고 울어야 할 때도 있다. 웃을 일이 곱질 때 자만에 빠지면 울 일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울 일이 곱질 때 마음을 다잡고 겸허한 자세로 두 손을 들면, 웃고 박수 치는 날이 찾아온다.

필자는 목회를 내려놓을 즈음 그리고 목회를 끝낸 후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섬섬한 감정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목회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믿고 신뢰했지만 등을 돌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났다. 지난 세월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고 두 손을 잡아주었다.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적도, 원수도 아니지 않은가? 양심을 품고 적대할 상대일 수 없다. 대립각을 세운 채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원수 맺지 말라, 용서하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타고난 성격이 직선적이면서 비사교적이어서 사람을 대할 때 호감을 얻다든지 자기표현의 폭이 좁다. 정당하지 못한 언행은 용납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위는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고 옮기는 것은 피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친구로 사귀진 못하지만 한 번 사귀 친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 하나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잃는 데는 잠시다"라는 명언이 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라는 사교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목회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교인 100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목회란 있을 수 없다. 철인 칸트는 두 인격이 상호적으로 동등한 사람과 존경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우정이라고 정의했다.

세상 떠난 원로목사님은 "목회에 염소는 필요악이다. 그러나 나는 대를 두고 따지고 시비 거는 그 염소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본다"라는 말을 남겼다. 솔직히 염소 같은 사람은 있는 것보다 없는 편이 훨씬 좋다. 그러나 큰 염소가 사라지면 뒤를 이어 다른 염소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목회현장이다. 거기서 목사의 스티그마는 깊게 자리한다.

스티그마는 신분과 소유의 표시였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스티그마를 신체에 남겼고, 짐승의 경우 소유주의 이니셜을 몸에 각인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의 종이라는 선포였다. 바울은 그 흔적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 일이 없었고 자신을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 그리고 바쳤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섬겼고 죽었다.

목사는 누구인가? 주인인가, 종인가?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 섬겨야 할 존재인가? 섬기는 종이라면 구체적 삶의 정황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한국교회의 병폐는 종은 없고 주인이 많은데 있다. '누가 교회 주인인가? 누가 오너인가? 누가 실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로 편을 가른 채 겨루고 있다. 그리고 함겨루기에 이긴 사람들은 전생영웅인 양 기고만장하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밀쳐내고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내 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필자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었다. 섬김 받는 목사, 마음 놓고 지도력을 퍼는 목회, 강력한 카리스마를 구사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대망이었다. 그것은 예수 목회자 아니라 황제 목회로 군주 목회자가 아닌가? 뒤늦게 철이 들어서일까?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스티그마는 지울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다. 세속정치는 종이 군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질서가 없다. 지울 수 없는 스티그마가 웅변한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 주인 행세하려는 것은 꼴불견이다. 종은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 높여 고백해야 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iamcspark@hanmail.net

예측불가 미대선 경선...최종주자 4인방 압축

(1면에서 계속)

각 주들이 안전장치를 갖춰 헌법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도록 연방대법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매우 제한적이고 특별히 악랄한 범죄의 경우, (사형제도는)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주들이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클린턴의 말이다.

반면 샌더스는 너무 많은 무고

이든도 진보가 아니다. 키스톤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힐러리는 샌더스 역시 그 자신이 말하는 진보에 대한 정의에 들 어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브래디 총기규제법을 다섯 번이나 거부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는 1993년부터 시행된 역사적인 총기규제법 '브래디 법(총기구매 시에는 이유를 명시하고, 수배자나 정신이상자 여부에 대해 일정 기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반

라고 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전 반대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럴 경우 어떤 의료체제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에 국가가 또 빠지게 될 것이 뻔한데, 전 아주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더스는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이 터무니없다며,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성립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정치 혁명이라는 대가가 불가피하더라도 말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아니 캐나다마저도

공화당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경선에서 대의원 과반을 획득한 주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최다표를 얻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중재를 거쳐 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내다본다.

WP의 정치부문 기자 겸 파워블로거인 클리스 실리자는 이날 '누가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까(Who's most likely to be the 2016 Republican nominee?)'라는 칼럼에서 "7월 클리블랜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민주: 힐러리 · 샌더스, 4일 TV토론서 이슈별 의견차 보여 공화: 중재전당대회 거쳐 크루즈 낙점...트럼프는 3위 예상

한 사람들, 특히 소수자들이 죄가 없음에도 사형을 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야만적인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폭력과 살인이 유행하는 이 세계에 정부 스스로 살인행위의 가담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샌더스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살인에 가담하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보의 정의와 총기 규제

샌더스가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가 될 만큼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하자 힐러리는 이렇게 반격했다. "샌더스의 그런 발언을 계속 들어오면서 궁금했던 게 있다. 도대체 (그에 따르면) 민주당에 진보라는 게 남아있거나 하겠는가?"

"샌더스의 진보에 대한 정의 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진보가 아니다. 웰스트리트에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통령인 바

대해왔다. 그는 연방 하원의원이던 지난 1990년 브래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지난 2005년에는 총기 제조와 거래상을 소송에서 보호해주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힐러리는 반대했다.

의료보험

클린턴은 기존의 보건체제를 더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보험가입자 부담액에 대한 보호 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처방전에 대한 감시도 약간 높이는 식으로 오바마케어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반면에 샌더스는 의료보험이 모든 이에게 제공돼야 하고 그 적용범위가 기존보다 더 커질 정부 운영하의 보건체제로 대체돼야 한다고 말한다.

클린턴은 토론 초반에 왜 점진적인 수정을 선호하는지 설명했는데, "환자보호 및 적정 보장법(오바마케어) 자체로도 성과가 컸고, 더 중요한 것은 개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

보건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국가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개인 당 의료비용을 치르고 있지요"라고 샌더스는 말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런 체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난 못 받아들입니다."

여성 대통령과 기득권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주지사, 시장들,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그저 힐러리가 '기득권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클린턴은 즉각 반격했다. 그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여성이 과거에 단 한 번도 '기득권층'의 일부였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첫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서 저를 기득권의 전형적인 예로 묘사하는 유일한 본인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 참 즐겁네요."

로 지명받기 위해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한 주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1위를 차지하는 주자가 최종 후보로 지명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며 크루즈가 과반에 못 미치는 최다 득표를 얻을 것으로 관측했다.

결국, 크루즈가 '중재 전당대회'(brokered convention)를 거쳐 최종 후보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재 전당대회는 경선에서 어느 주자도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가 막후조정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해 이 방안을 고려했으나, 실리자는 이날 칼럼에서 어차피 트럼프는 경선 레이스에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에 이은 3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9면으로 계속)

EM Pastor 청빙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KAPC) is looking for EM Pastor 주사랑장로교회 (KAPC) 에서 영어목사(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POSITION: Part-Time Position

QUALIFICATIONS:
Graduate of or currently enrolled in a reformed seminary
Fluent in English (Korean language ability is also preferred)

APPLICATION DOCUMENTS
Resume with Picture
Personal Testimony & Philosophy of Ministry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Two Sermon Files

자격조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개혁 중이거나 졸업한 분
영어에 능통한 분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한 분을 선호함)

제출서류
이력서 (사진 포함)
개인간증과 목회철학
추천서 2통
설교파일 2개

Please, send all the documents to Pastor John Jung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John Jung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주사랑장로교회 (KAPC)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45개국어 출판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공고

본교회는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교회로서 목회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 1) 정국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 하신분(M.Div) 으로 본교단(KAPC)에 소속 또는 KAPC가입 조건을 가지신분.
- 2) 담임목사 5년 경력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분또는 부목사 3년 - 5년 이내 목회경력이 있으신분.
- 3)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가능하신분.
- 4) 영주권자, 시민권을 소유하신분

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2개월 이내 사진 첨부) 1부.
- 2) 목사 및 사모 신앙고백서 (성장배경, 신앙경력,가족사항등) 각 1부
- 3) 목회 비전(목회동기 및 목회철학,교회운영계획 등 포함) 1부
- 4)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각1부.
- 5) 가족 소개서 (사진 포함)1부
- 6) 목회 안수 증명서 1부
- 7) 설교 CD,2회분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2) 선임된 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 3) 서류마감: 2월 29일까지소인

제출처
Attn: 동문교회 청빙위원회
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213-483-6675 (단 전화사절)

동 문 교 회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지카(zika) 바이러스

바이러스란 단어는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비루스(virus)'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나노(nm) 단위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견된 바이러스 인자로 인해 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전역에 모두를 죽을 공포로 몰고 간 페스트균보다 더 치명적인 연쇄 살인을 일으킨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며 에볼라,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의 출현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면역체가 생기면 변이가 되어 새롭게 다시 나타나

게 되고 그 힘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래 전 세계를 다시 공포로 몰아넣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숲에서 사한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태평양 지역의 섬 등에서도 발견됐으나 최근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은 소두증의 원인인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소두증 신생아는 성장하면서 걷기와 듣기 말하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머리 둘레가 32cm 이하인 신생아는 소두증

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정상아의 머리 둘레는 34-37cm인데 소두증이 심한 아이는 이마가 존재하지 않으며 눈썹 바로 위에서부터 급격한 골격의 휘어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이 정신마비, 혹은 저능, 신체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며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것은 물론 심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브라질에서는 2015년 한해 4000명의 소두증을 가진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비단 병리적인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사회적 병폐 역시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기본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파생된 문화, 사회적 바이러스 효과는 폭넓게 퍼져나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를 지켜줄 안전

지대는 없습니다. 병리적인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적 병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에 매년 자살하는 10세-24세 연령대의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세-24세 젊은이 5504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13%나 늘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연령대 사망원인의 두 번째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10대들은 자살 뉴스를 접할 때 자신도 자살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자살 문화 바이러스가 전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형태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혹은 멀리 우리를 억압하며 조여 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해

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성인들에게 치명적이었지만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화면에 비친 작은 머리를 가진 아이들의 모습은 심령에 깊은 한숨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자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위한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는 분명 재앙이기는 하지만 죄악세상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 많은 세상에 묻히고 있지만 우리 사고와 문화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출애굽'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umkyusu@gmail.com

푸 / 른 / 초 / 장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16년을 시작하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새해가 시작될 때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갈망하곤 합니다. 예컨대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러한 바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길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들의 길을 피해 아버지가 도망을 가야하는 극단적인 패륜(敗倫)의 모습 속에서

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살됨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 제사장

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며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삼하15:26). 언약을 성으로 돌려보내었던 다윗은 피난 노정에서 시므이라는 사울 집안사람으로부터 저주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삼하16:7). 현장에 있었던 다윗의 조카 중 한 사람이 단 칼에 시므이를 처단하려고 요청하지만 다윗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 다윗 자신이 들어야 할

2.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 위기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나설 때,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철학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허위나 거짓,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서서히 우리 앞의 길이 보이기

다윗은 정변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의 최고 관심사는 아들 암살됨의 생존여부였습니다. 암살됨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암살됨은 정변의 승리감보다는 아들을 잃은 아픔과 회한(悔恨)으로 인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암살됨'을 연거푸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토록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정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을 떠날 때 궁궐에 남겨 두었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인 희롱과 폭행을 했던 인물이며 패륜아(悖倫兒)인 암살됨의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요? 다윗은 암살됨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암살됨이 이런 패악한 짓을 아버지인 자신에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인 나는 어떤 모습인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볼 때, 다윗은 자신의 삶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성스런 신하였던 우리와의 아내를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를 최대한 사람들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죽이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인맥을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고 부정직한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은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삼하 15:13-30)

오려려 한 해의 벽두(劈頭)에서 대담하게 우리 앞에 찾아올 환난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고 삶의 걸음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걸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큰 아픔이나 위기의 상황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찾아봅시다.

우리는 가장 귀한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풀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웃음을 머미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의 임재(臨在)의 상징이며 백성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되었던 언약을 사독은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동행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더 다윗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삼하16:11).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물(聖物)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다윗!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다윗!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의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며 2016년 한 해 동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영적인 자세입니다.

시작합니다. 다윗은 반역을 도모했던 암살됨 일당을 평정(平定)하기 위해 출발하던 군사들과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부탁의 말을 합니다(삼하18:5). 바로 암살됨을 너그럽게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암살됨을 죽이지 말고 꼭 살려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 요압이 중심이 된 일단의 사람들이 암살됨을 비참하게 도륙하게 됩니다(삼하18:14). 그렇게 해서 반역자 암살됨이 죽음으로써 정변은 끝이 나게 됩니다.

(6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ler

Online Courses (8 weeks)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교회와 기독교 가정, 사역자들에게까지 들어온 포르노 문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하)

지난 52년간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Josh McDowell Ministry(대표 조시 맥도웰 목사)와 바나 그룹의 2015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일주일에 적어도 포르노에 1번쯤은 접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설문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13세의 십대들과 24세까지의 청년들의 48%가 포르노를 매주 또는 더 자주 포르노를 본다고 조사에 응했고, 31세에서 40대 후반은 총 56%, 51-69세까지는 총 40% 이상이 포르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르노의 이슈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슈일까요? 교회 안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성도들, 교역자들은 포르노로부터 자유 할까요? 바나 그룹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1%나 되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포르노 문제로 고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던 포르노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포르노 사이트들을 찾아가다가, 지금 공립학교의 잘못된 성교육과 친동성애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십대들과 청년사 이들에게는 게이, 레즈비언, 등 심지어는 동물과의 성관계까지, 심각한 변태적인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들이 학생들 사이에 무섭게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나 남자들 사이에, 부모들이 사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포르노의 위험성과 성경적 성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2살이 넘으면서부터는 부모들이 나이에 알맞은 성경적 성교육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에 눈이 뜨여지는 4-5세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자녀들의 대답들을 적으면서 이들이 중독인지 아니면 중독에 가까운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포르노를 보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역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포르노 중독인지, 중독이라면 얼마큼 중독인지를 알아본 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가이드라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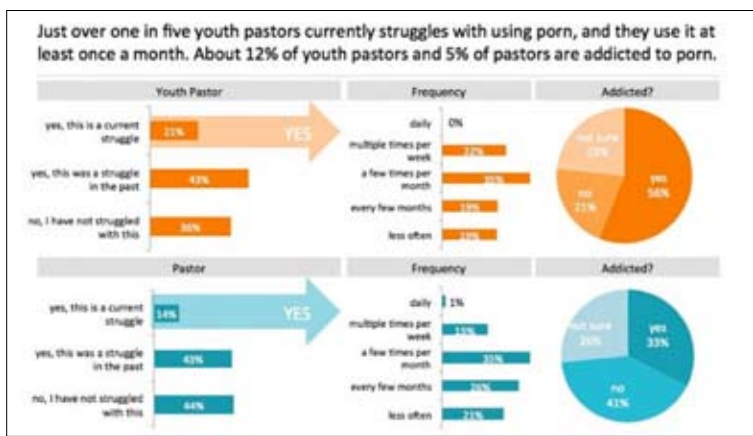
■언제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하게 되었니?

■누구랑 본 것이니 아니면 혼자 본 것이니? 어떻게 보게 된 것이니?

■처음 본 이후, 어디서 또 보게 되었니? 누구랑? 혼자? 그 이후 몇 번이나 더 보았니?

■주로 어느 시간에 포르노를 보니? 누구랑 보니? 만일 함께 보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니? 포르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니?

■너는 포르노로부터 자유하고 싶니? 포르노가 얼마나 정신적, 육



포르노교육은 5세부터...유스사역자 12%, 장년목회자 5%가 중독 이미 중독에 빠졌다면 크리스천 상담자에게 상담과 치료 받아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포르노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유스 사역자 중 5명당 1명이 자신들마저 포르노에 빠져 고민하고 있으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포르노를 본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14%의 장년 목회자들도 포르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 12%의 중고등부 사역자와 5%의 장년 목회자들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다고 설문조사에 답했다고 합니다.

포르노로부터의 대안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3000명의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 사실상 포르노 중독의 의미를 몰라서 자신은 중독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만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포르노를 본다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중독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조언을 줍니다. 왜냐하면, 십대일 때

으로 "Sexing"이라는 대화와 사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을 만큼 지금 포르노로 인해 열린 청소년들의 영혼의 문으로 사악하고 추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기에, 우리 교회들과 부모, 심지어는 부부들끼리도 절대로 포르노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며, 꼭 치료받고 자유 해야 할 이슈입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는 "포르노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가정의 연합, 국가의 도덕성 등 모든 관계의 가치를 다 위반한다. 우리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의 한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람을 SEX OBJECT, 성 노리개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한 존중도, 인격 존중도 생명에 대한 존중도 다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자체를 하찮게 보게 되어,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매우 무법주의적이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조언

책임에 대한 인식도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목표, 그 아름다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5살 때부터 포르노를 접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기에, 4살 이후부터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포르노의 위험성을 먼저 가르쳐주고 각각의 책임에 대해 가르쳐주어야만 세상에서 그들에게 거저된 정보를 줄때, 자녀들은 지혜롭게 나쁜 정보들을 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포르노에 빠진 또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만일 포르노를 접한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돕기 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신적으로 해로운지 아니? 포르노로 인해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거 아니? 등등을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포르노에 빠져 있었던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빨리 좋은 크리스천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과 치료(Therapy)를 통해서 포르노에서 자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포르노를 한두 번 보고 그만두었으면 몰라도 만일 계속 매주, 매달, 매년 몇 년째 보고 있다면, 그는 꼭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포르노에 중독은 아니지만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포르노가 왜 그리고 어디에 해로운지,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 그들의 미래와 사회에 어떻게 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차근차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권면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9장에 70이레의 계시를 읽는데 27절의 그는 누구인지요?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다니엘서의 멸망의 가증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요?

-LA에서 David Joshua Lee

A: 성경 중에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좋은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종말에 되어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종말계시입니다. 69이레가 지나면서 기름부은 자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26절에 나오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로마의 디도장군을 말하며 예루살렘을 훼파하게 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27절의 그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Anti-christ)를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짓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레의 절반(후 3년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는 적그리스도 통치기간 때에는 모든 예배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하는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교회가 복음증거를 마칠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그 후에 재림

의 IS 통치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때문에 예배는 고사하고 난민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실제로 헬라의 안디오코스 오페파네스는 군대를 통원하여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밟고 약탈하고 성전예배를 훼파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희랍신전을 건립하고 반제단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를 먹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안디오코스 오페파네스는 장차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이전에 미운 물건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후2:2-3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강포하여 란 말은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여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터인데, 미운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신처럼 경배케 하려고 날개를 의지하여(정치적 힘과 경제 종교를 통합함) 자기를 담은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경배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13장14-17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짐승(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경배케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멸망의 가증한 것(단11:31)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합니다. 로마시대 황제숭배 하듯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자신의 우상을 김일성처럼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계11:7절을 보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마칠 때쯤입니다.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김문수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와 가정위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김문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시 : 2016년 2월 21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나성제일교회 본당
주소 :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전화 : 213-388-7101

나성제일교회

지휘자 초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믿음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음악을 전공한 자로 예배를 돕고 2부 성가대를 섬기며 함께 동역할 분 연락 바랍니다.

자 격

- 믿음으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
- 음악을 전공했거나 수년간 교회 지휘 경력자
-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
- 55세 미만

신청서류

- 이력서 및 신앙소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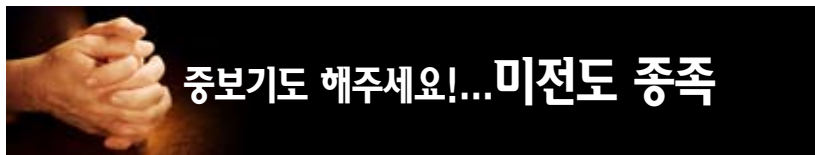
신청마감

- 2016년 2월29일(월)

문의 및 제출 처: lasolidrock@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행정담당 (213)254-8165
1645 Beverly Bl. L.A., CA 90026

남가주든든한교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동남아시아의 타이 농(THAI NUNG)



타이 농(산지 농족)으로 알려진 타이 농족은 중국 남부의 운남(Yunnan) 성에서 베트남 북부로 이주해왔다. 1954년 베트남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타이 농 사람들이 피난을 시작했고 베트남 남부 지방에 다시 정착했다. 약 5만명 정도의 농족들이 라오스의 중북부지역으로 이주했고, 11만5천 명이 웃도는 인구가 이들의 원래 고향인 중국에 남아있다.

타이 농 족은 중부 타이어(Central Tai languages)들 중 한

언어를 사용하는 디악(Diac) 종족이다. 중국에서 타이 농족은 소수 민족인 Zhuang(중국어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나,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중국어로 "농(Nung)"은 "똥똥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타이 농족을 중국계 농족과 구별하기 위해 "운남타이족(Yunnan Tai)"으로 부른다. 이 두 종족의 언어는 서로 다르나 주로 서부 광시(Kwangsi) 자치주인 중국-베트남 국경 부근에 함께 살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 타이 농족은 유능한 군인으로 평평이 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사람으로도 인식돼있다.

삶의 모습

타이 농인들은 근면한 농부들이다. 주로 지대가 높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쌀과 인디안옥수수를 재배한다. 타이 농족은 정교한 전통 자수기술에 뛰어나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사는 타이 농 여성들에게 실시중인 한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면(綿)을 키우고 실을 뽑고 말려서 천을 짜는 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타이 농족이 입는 전통 의상은 집단마다 아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중국인과 비슷하게 입으나 여성들은 바지 위에 다시 긴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큰 "시농(chignon: 쪽진 머리, 머리매듭)을 하며 작은 터번을 두른다.

타이 농족은 다시 여러 씨족들로 나뉘는데, 주로 중국에서 자신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나뉜 것이다. 사회는 부계중심이며, 가부장적인 사회다.

혼인은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중매쟁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부의 의견은 최종 결정전에 고려된다.

이후 일단 결혼식이나 나면, 도교 승려가 이 예비 신랑, 신부의 생일을 가지고 태어난 해의 띠에 따라 궁합을 확인해 결혼의 적합성 여부를 살핀다. 그리고 도교 승려가 신랑신부의 출생 별자리에 맞는 혼인하기 좋은 날을 잡아준다.

결혼 후 신부는 남편 집안 시가로 옮겨간다. 신혼부부가 그동안의 독립적인 집을 갖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남성들이 때로 다른 부족 여성들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타이 농 여성들은 족내혼을 꼭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타이 농 사회에서 부유한 남성들은 한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여러 명의 부인들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가옥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가까이 밀집해있다. 가옥은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땅에 집을 짓기도 하고(중국 토착의 집 가옥 같이) 땅에서 띄워 막대를 세우고(고상식)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라오족 가옥 같이). 각 집마다 조상신들을 모시는 제단이 있으며,

이 제단은 주로 현관문의 반대방향(문을 열면 마주 보이는 곳), 가장 중심에 있는 방에 놓여진다.

신앙

타이 농 사람들은 조상숭배와 사머니즘을 포함하는 전통 민족종교 의식을 행한다. 또한 이들은 불교, 유교, 도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죽은 조상의 혼이 살아있으며 이 혼들을 먹고 돌봐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혼들을 적절히 달래지 않아 이 혼들이 배고프고 불만을 갖게 되면 악령들이 된다고 한다. 또 여러 가지 신들, 악령, 혼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주술적인 질병 치료, 귀신들과의 대화, 마을행사 등의 경우 이 무당들에게 의지한다.

타이 농인들은 영혼이나 "피(phi-영적존재)"들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특히 산, 바위, 나무, 물, 들판 등과 같은 곳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종교 지도자들

은 이러한 영혼들을 통제하며 이러한 영혼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악귀들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무당이 항상 자리를 지킨다. 누군가 죽었을 때는 무당이 고인이 "죽음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행한다. 마을 사람들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자주 치르는데, 돼지, 닭, 오리나 무당이 명한 동물들을 도살해서 제사에 제물로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까지 타이 농족을 위한 예수 영화나 기독교방송매체 같은 것은 없다. 쪽북은 성경만이 농족 언어로 번역됐을 뿐이다. 복음적인 기독교 문서자료, 라디오 및 TV 방송 같은 자원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타이 농 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있으나, 중국에 있는 타이 농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현재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슬람수업 거부 기독교인 학생에 F학점

"공립학교가 강제로 내 아이를 이슬람교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매릴랜드 주의 라 플라다 고등학교(La Plata High School)가 학생들에게 이슬람 세뇌 교육을 하도록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공립학교는 세계사 수업 시간에 알라를 기도와 같은 신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가르쳤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슬람 신앙고백 사하다(Shahada)를 쓰고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이슬람의 5대 지주를 외우라고 명령했다.

사하다(Shahada)는 "알라가 유일신이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라는 이슬람교의 사도신경이다. 이 사하드를 중년 앞에서 공언하면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도가 된다.

이슬람의 5대 지주는 사하다(Shahada, 이슬람 신앙고백), 살라(Salah, 매일 5번 기도), 자카트(Zakat, 자선, 구제), 사움(Saum of Ramadan: 금식), 하즈(hajj, 성지 순례, 메카 순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해야)를 의미한다.

존 케빈 우드(John Kevin Wood)는 딸이 그 세계 역사 수업에서 사하다 공언을 강요받고 이슬람교 세뇌교육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격분했다. 그는 학교에 전화하여 딸이 이슬람 수업에서 탈퇴하고 다른 수업을 대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교장은 "이슬람 수업을 탈퇴하면 'F'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버지 우드가 계속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자 부교장은 법원을 통해 존우드가 학교에 오는 것을 금지시켰다. 결국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존우드의 딸은 대학 진학 학점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했다.

재학생들에 따르면 "평화적 종교 이슬람교는 사실이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냥 신념이라고 가르쳤다"며 "지하드는 이슬람 '거룩한 전쟁'으로서 종교적인 의무이고 영적 훈련을 포함한 이슬람에 헌신하기 위한 내적 투쟁이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911 테러와 보스턴 폭격 등의 지하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드 부부는 결국 찰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Charles County Public Schools, the Board of Education)와 라 플라다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이 학교에서는 심계명이나 성경의 어떤 부분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이슬람 교리에 다루고 있는 책은 집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학교에

나뉘고 다녀야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소송을 맡은 법률센터의 리처드 톰슨 대표는 '기독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 오거스타 지역에 위치한 리버데드 고등학교에서 "이슬람교의 신앙고백인 사하다가 아랍어로 따라 쓰라"는 숙제 때문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 마을 전체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은 종교적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공립학교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켄트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는 '복음주의 목사'

테드 크루즈(45·사진) 공화당 상원의원이 1일 미국 대통령 선거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69)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 라파엘 크루즈(77)는 쿠바에서 태어난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다.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항의하다 투옥됐던 그는 18세에 쿠바를 탈출한 뒤 미국으로 건너와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했다. 크루즈 의원은 그 시절의 아버지를 "1시간에 50센트를 받고 설거지를 하며 대학에 다녔다"고 회상했다. 라파엘 크루즈는 대학 졸업 후 "반군 지도자가 재산을 압류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며 피델 카스트로(90)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가로 활동했다. 40대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선교와 정치활동을 하며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루즈 의원은 가난한 유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6세의 늦은 나이에 복음주의의 크리스천이 된 아버지 라파엘 크루즈의 가르침이 인생을 바꾼 것이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저녁식사 때마다 성경 구절을 놓고 대화를 나누게 했다. 아들 크루즈에게도 "하나님은 너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God has destined you for greatness)"고 되뇌었다고 한다.

정치적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크루즈 의원은 법률가이자 정치인으로서 길을 걷게 된다. 허버트 로스쿨을 졸업하고 텍사스에서 첫 히스패닉계이자 미국 역사상 최연소 법무차관이 됐다. 워싱턴 정가에선 솔직하고 즉흥적인 트럼프와 달

리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선인 크루즈 의원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화당 경쟁 보수세력인 티파티의 지원도 있었다. 크루즈 의원의 공화당 내 지지기반이 두터운 것은 이 덕분이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달 아이오와주 유세 연설에서 구약성경의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구절이다.

크리스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트럼프 역시 고린도후서의 한 구절을 언급했지만, 고린도후서(Second Corinthians)를 '고린도 두 편(Two Corinthians)'이라 읽어 조롱을 받았다.

이 상원, 동성애자 결혼·입양 법안 심의 착수

이탈리아 상원이 3일 논란이 되는 동성 결혼 허용과 입양에 대한 의원들의 법안 토의를 시작하면서 동성 결혼 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상원은 2일까지 모니카 시리나 상원의원이 제출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대한 일반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주에 표결하게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는 전했다.

시리나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우리의 시스템은 부모 혼인의 법적 효력 여부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모가 이성 또는 동성 간 결합이냐에 따라 부모가 될 권리를 평가하거나 아이가 태어난 방식에 따른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권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군소 정당인 '신 중도 우파당(NCD) 출신인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동성애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는 조항을 없애 민주당과 NCD가 함께 힘을 합치자"면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오성운동과 결탁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알파노 장관의 이런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 법안은 균형을 맞춘 것이며 동성 커플의 입양 허용 조항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고 이탈리아 방송인 Rai 뉴스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북부 리그가 민주당 동성 결혼 법안에 대한 4천500개 수정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과 모종의 협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상원에 제출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은 동성애자의 어느 한 쪽이 숨졌을 때 함께 살던 사람이 연금 일부를 계속 받도록 하고, 유산을 자동 상속하는 등 결혼에 의한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자녀도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서유럽 주요 국가 중 아직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나라이며, 마테오 렌치 총리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이전에도 동성애자 합법화 법안을 몇차례 추진했으나 가톨릭교회와 깊은 유대를 가진 정당들이 반대하면서 입법화가 번번히 좌절됐었다.

미대선 '공화 우세' 주 민주당 앞서...2008년 이후 첫 역전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갤럽 조사 결과 공화당 우세 지역이 민주당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3일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틱코와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2015년 기준) 결과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강세 또는 우세를 보인 곳은 모두 20개 주였다.

공화당이 강세를 보인 곳(레드 스테이트)은 오클라호마, 테네시,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아이다, 몬태나,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알래스카 등 12개 주다.공화당 우세 지역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뉴햄프셔 등 8곳이었다.

강세는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을 때, 우세는 5-10% 차이가 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블루 스테이트)은 11곳(버몬트, 하와이,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캘리포니아, 메인랜드, 뉴멕시코,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저지)이었고 3곳(워싱턴, 델라웨어, 오리건)에선 우세를 보였다. 나머지 16개 주는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 것은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에는 민주당이 35개 주에서 우세를 보여 공화당(5개주)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우세지역 격차는 2011년 1곳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공화당이 앞선 적은 없었다.

2015년 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가 가장 컸던 곳은 공화당 강세 지역인 와이오밍(31.8%)이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3개 주에서 변화가 있었다. 메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은 민주당 우세에서 경합 지역으로 바뀌었다. 뉴햄프셔와 웨스트버지니아,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는 경합지역에서 공화당 강세 또는 우세 지역으로 옮겨갔다. 알래스카와 오클라호마는 공화당 우세에서 강세 지역으로 바뀐 반면 델라웨어는 민주당 강세에서 우세로 지지성향에 변화가 있었다.

한편, 갤럽은 지난해 미국 전역의 성인 17만7천991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지율 통계를 냈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런데 그 놀라운 용서와 치유함을 받았던 다윗 자신은 정작 아들 압살롬의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오래 전 압살롬은 자신의 친 여동생이 이복(異腹)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뼈 아픈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받았던 아버지 다윗은 성폭행의 당사자였던 압살롬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친 여동생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2년 동안 복수의 계획을 세워 이복 형 압살롬을 살해하게 됩니다. 형을 살해한 후 압살롬은 타국에 있는 외가로 도망가서 여러 해 동안 머물다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아버

지였던 다윗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압살롬의 삶에 깊은 상처가 되고, 결국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시도하는 패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모든 지난날 자신의 깨어진 삶과 아들 압살롬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따뜻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그토록 아파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압살롬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아!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아버가 된 다윗의 옳음함과 자존심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받아주시는

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배풀지 못한 아픔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아픔 속으로 젖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 앞의 길은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평평대로(平平大路)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분명히 이 한 해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위기와 아픔의 시간이 우리를 급습(急襲)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감사하며 뚝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를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7)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숨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15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의를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둡게 숨어 계시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해가 구름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가리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수 있는 분이신 신학적 주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위반되는 것처럼 들린다.

숨겨짐(hidden)이 아닌 숨음(hiding)은 능동적인 행위이다. 행위자의 의도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가운데 당신의 숨기심을 선택하신 것이다. 어릴 때 많이 놀았던 숨바꼭질에서 숨어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숨겨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 하실까 질문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의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에게 하나님의 숨으심은 절망, 분노, 공포, 아픔, 실망, 배신 감정을 가져온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들과 비슷하다. 나에게 세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다시 돌아온다는 안도의 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은 아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 은혜와 은총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축복의 말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야훼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민6:25-26)라고 돼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는 모든 생물이 떨고 두려워한다고 시편 104편 저자는 말한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더라 하여도 그들의 생명과 삶은 이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재 또는 얼굴을 감추심은 종종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감추실 것이라고 신명기는 경고하고 있다

러가는 양들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한다(22절).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실 것을 촉구한다.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로 “흑야”(Night)이라는 자서전을 쓴 엘리 위젤은 이 책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축복할 수 있을까 의심한다. 그리고 한 어린 아이가 나치 저항단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나무에 목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하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한다. “하나님은 저 나무에 목매달려 계시다...” 엘리 위젤에게 목 매달린 소년은 이러한 잔혹한 비극이 세상에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하

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 곧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다고 이해했다. 심오한 진리이다.

인간의 성취, 영광, 힘, 자랑, 지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 할 때 우리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무너지게 된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에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분이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회심(막15:39)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은 메시야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높였지만 백부장은 아무 저항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

십자가의 신학은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다. 유럽,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기독교의 쇠퇴를 염려하는 이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숨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신학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위기가운데, 환란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james.lee@itsla.edu

용의 고난은 하나님 부재의 문제... 하나님의 죽음에서만 진정한 임재 발견 기독교 쇠퇴 현 시기에 '하나님의 숨으심' 은 십자가의 신학 재발견할 기회

내 아내나 내가 출장을 갈 때 불러주는 노래가 있다. 그 애가 자주 보는 Daniel Tiger's Neighborhood라는 TV 유아프로그램에서 배운 단순한 노래인데 “Grown-ups come back(어른들은 다시 돌아와)”라는 가사이다.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 다 아는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 그리고 집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엄마 또는 아빠의 얼굴을 하루 넘게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아빠, 엄마가 자신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렸

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준다. 또 어른의 부재는 자신들의 세계를 혼자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용기와 모험심을 심어줄 것이다.

고난은 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였다. 용이 13장2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며 자기를 적으로 여기신다고 한탄하였다. 하나님의 부재를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용은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다고 말한다(13:20).

(31:18).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감추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한다(45:16). 반면에 시편 44편 저자는 자신들의 수치와 환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저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왔음을 주장한다(17, 18절). 인간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 분명히 다 아셨을 텐데, 자신들의 고난은 왜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

고나 자신의 믿음도 죽어버렸음을 상징했다.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는가? 육백만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한 줌의 재료 사라져버린 것이 어찌 그들의 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이 비극 앞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틴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숨어계신다고 주장했다. 영광의 신학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진실을 말한다하듯

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 7:15-16).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시121:5).

왜 하나님은 그들에 비우셨던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구름기둥은 길 안 내뿜만 아니라 해를 가려주는 역할도 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을 덮어 주셨던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12편으로 계속)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1)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그들도 못 만들어 주는 로렘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축배를 들기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갔다. 광야로 숨어들어간 엘리야는 어디에 누워 있었는가? 로렘나무 아래였다(왕상19:4). 로렘나무든 싸리나

무든 가시떨기나무든 에셀나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그 나무가 로렘나무였다고 구대여 할 필요 있었을까?

로렘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그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

나 로렘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로렘나무는 우리에게 생소한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이다. 광야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무 이름을 잘 아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이 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관목이다. 커야 2미터 정도다. 잎은 바늘 모양

으로 되어있다.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피할 만한 나무그늘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라도 몸을 숨겨야 했던 것이다. 한낮에 짙은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조그마한 관목 그늘 아래 겨우 얼굴을 숨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처량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광야를 지나다보면 드문드문 나무가 한 그루씩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싹나무다. 광야에서 자라는 유일한 나무로서,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옮겼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다. 아주 볼품없는 나무이다. 이 나무도 목재로 쓰일 만한 나무는 아니다. 그런데 법계를 바로 이 나무로 만

들었다. 광야에 나무가 어디 있었는가? 이 나무밖에 없다. 그래서 법계를 만드는데 사용된 것이다.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나무 밖에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법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싹나무는 로렘나무에 비하면 그나마 나무라고 할 만한 나무이다. 큰 것은 10미터 정도 되기도 한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늘을 찾아 피했던 나무는 싹나무가 아니라 로렘나무였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햇빛을 피하고 추위를 피했다. 장막이 만들어주는 그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



번역 · 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 주석 성경 (신약)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구약 출간예정

신약 신간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구(출간목회) 기획 2,106면
이형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리더십 코멘터리 (10)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의 인품과 Team Play

때와 장소에 따라 리더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영향력을 통해 사람을 움직여서 조직과 팀을 성장시키는 기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리더십의 황금법칙이다. 성공과 형통이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다. 그렇지만 리더십의 능력이 없는 성공은 제한된 결과만을 낳는다. 리더는 리더십의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최초의 노력보다도 500%를 높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가 좋은 리더가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창공을 차고 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이 오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더 준비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로서

다면, 리더십을 갖추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기에 보다 큰일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K는 리더십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다.

리더의 No.1 덕목-인품

사울은 좋은 조건을 갖춘 리더였다고 성경은 말한다. 집안도 좋았다. 베나민 지파의 후손으로 그 부모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사울의 장점이다. 목회자가 집안이 좋다는 것과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는 것은 목회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외형적인

리더의 리더십이 리더 수준과 조직체의 잠재적 성장 결정 동역자를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격 갖춰야

사람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리더십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끌 수 있는 한 개인의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잠재성도 낮아진다. 리더십의 능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리더의 리더십이 리더의 수준과 조직체의 잠재적인 성장을 결정시켜주는 것이다.

준비하는 리더십

K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목회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설교와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설교 연습을 하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K는 목회자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무엇보다도 설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설교원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설교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K가 리더로 있던 교회학교는 조직경영이 원만하고 성장과 부흥이 되었을까?

그것은 K만의 기대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K의 설교에 대한 효과는 떨어졌고, 청소년 리더들은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실체가 밝혀졌다. 설교에만 집중된 K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성을 소홀히 했다. 또 리더십을 발휘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며 문제해결을 해나가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해 결국 실패한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목회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기본적인 목회적 심성을 갖고,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적 심성과 설교 이전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이다. K가 목회경험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

것을 중요시하는 매스미디어 시대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간의 외형적 조건과 인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외모를 잘 갖춘 리더에게 호감을 갖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모와 외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얻어지는 장점들은 사라지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수려하고 키가 큰 사울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울의 인품이 드러나자 백성들은 그를 멀리 했다. 이런 사울에 비하여 다윗은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아들이 불과했고, 키도 작았다. 그러나 다윗의 심성은 언제나 맑고 깨끗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품을 보신다. 따라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제일 덕목은 인품이다. 리더십은 훌륭한 인품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리더가 훌륭한 인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가 리더로서 발전할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영향력이 크고 훌륭한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좋은 자질과 복합적인 리더십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리더십의 장점만으로 좋은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리더십의 많은 덕목들 가운데서 좋은 인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리더십은 모래 위에 쌓은 집에 불과하다. 좋은 인품은 리더십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초석에 해당한다.

사울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과 불순종과 질투와 변명과 조금만 인품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다윗은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 맹수들과 싸우는

용기를 가졌고,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졌으며,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참회하는 정직함이 있었다. 이런 인품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다.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인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품을 꾸준히 개선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

리더십의 원리-팀 플레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다. 당시에 사울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다. 그는 다윗을 자신의 파트너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팀플레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윗을 파트너가 아니라 라이벌로 여기고 질투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부교역자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라이벌로 여기고 심지어 스마트폰 부교역자는 교회로 청빙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담임목사들이 설교나 리더십 등에서 담임목사보다 뒤쳐지는 부교역자들을 청빙하여 자신의 위상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들이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다. 만약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좋은 부교역자들을 청빙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능력 있는 교역자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돕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 함께 일했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사울의 왕권이 계속 이어졌을지도 모르고,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도 않았을 것이다. 설사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 해도, 사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윗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리더들은 서로를 라이벌로 여길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리더들은 모두 한배를 탄 지도자들이다. 팀이 승리하면 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승리가 된다. 그리고 팀이 패배하면 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가 된다. 따라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 팀 리더십에 가장 해로운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가진 질투와 시기심이다. 팀을 이룬 곳에는 항상 시기심의 마귀가 침투한다. 리더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기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커뮤니케이션과 스킨십이 있을 때 리더십의 능력이 향상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권한을 위임하는 지도자, 파트너를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세워주는 지도자, 좋은 인품을 가진 지도자이다. 이런 지도자야말로 새 시대 목회를 할 수 있는 새 리더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어쩐지 우리 주위에 점점 이웃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을 거의 포기한 채, 저마다 자기 일에 노예가 되어 조여 오는 생활가운데 모두가 숨 가쁘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상처 받아 텅 비어버린 마음인데도, 서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대신, 벽을 높이 쌓아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며, 점점 더 잦아드는 삶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한 삶을 영위하며 산다. 그래서 전해들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건성으로 대하는 몸짓 하나에도 기분이 상해 입을 닫아 버린다. 큰 문제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고 넘어간다지만, 그래서 큰 문제보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 속에 이 정도는...이란 기대 때문에 섭섭함이 앞선다. 예를 들어 약속을 깜박 잊어버린 것, 몸이 아프다고 해도 약이나 챙겨주지 않는 것,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은 것...

사실 늘 덩벙대고 실수투성인 나는 남편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에게 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다. 그러나 나는 때로는 그런 내가 좋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듯이 뽕이 가득 찬 것 보다는 어딘가 좀 엉성한 구석이 있으면 뽕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심지어는 너무 잘 생긴 사람보다 조금 편하게 생긴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듯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난 많은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진다.

그렇다. 아름다운 사람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자였으며 베드로는 배신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실수를 통해 자신을 알고 달라지는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기에 어쩌면 우리 편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보다는 인간미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우린 때론 슬픔에 젖고 때론 화를 내기도 하며 말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금방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볕이 내리 쬐 때도 있는 그런 변덕스런 기후 속에서도 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갖고 살며, 한 겨울에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삶의 많은 문제들은 아마 풀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들도 많아지리라.

시인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길 우리는 인생행로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두렵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목회자, 양들이 이 울타리 안에서 영적인 줄을 잘 서게 해야 한다는 큰 부담과 함께, 우리의 황무지 같은 마음들이 장미꽃이 되는 짙은 아름다움이 되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

그렇게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이 그 울타리를 뚫고나와 목장과 목장의 갭이 허물어지며, 교회와 교회사이의 벽을 뚫고, 교파간의 알력도 무너뜨려서 그야말로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벗기듯 우리의 두터운 관계들도 하나씩 벗겨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하고 행복해야 할 부부 사이부터 조금만 더 간격을 좁혀 행복한 어울림을 만들자. 그렇게 그 어울림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서, 언제나 떠올려도 정감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생활 때문에 정말 살맛난다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새어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간절히 바램해본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물과 햇빛과 돌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행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며 전심을 다하는 힘을 기르자.

changsamo1020@gmail.com
(10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3(Fri)-16(Mon) 2016
- 2) Place: Philadelphi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Yul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목회서신

현대 교회의 실상과 회복

현대 기독교 교회들의 실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교인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만드는

대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교회성장과 현재의 축복과 기복신앙만을 강조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있는 현대 교회의 허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공허한 사람

을 먹고 변화시킬 참된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결여된 현대 기독교회는 이제 영성이 결여된 공허한 예배, 형식과 사교적인 종교행위에만 치우치는 신앙, 감정에 치우치도록 선동하는 집회, 교회 안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으로 속속히 도입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세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기형아를 출산하고 있는 가짜 복음의 산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복음을 주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 밖에 없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처음 창조 받았던 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창조 당시의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 잃어버린 본향을 되찾고, 그 회복된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진리와 복음을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

여 구원의 길과 방법을 찾도록 계 획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 참된 복음과 귀중한 진리들은, 소위 신학자와 종교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유전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어, 이 변질된 반쪽 복음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도 'Christian',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 교회들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성품과 모습을 가진 수많은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게 된 원인은 바로 변질된 잘못된 복음에 있다. 요즈음 기독교 안에서 정형화 되어 가르쳐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와 성품을 완전히 뒤엎어 왜곡한 것들이다.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했고,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란 이제 예수가 없다"고 질타하며 탄식했다. 이제 교회에는 구경꾼보다 그리스도의 증인(Lord's Witnesses), 종교인보다 참된 그리스도인(Real Christians)이 필요할 때다.

제3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연다

3월 19일 오후 1-7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채플

남가주 한인신학생들이 연합으로 주관하는 교회와 개인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가 오는 3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채플(은혜한인교회 옛 본당)에서 개최한다.

2일 오후 1시30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에 마련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연합기도회 주최측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스태프들을 비롯, 베데스다대학교, 쉐퍼드신학교, 미주장신대학교,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학생회 임원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도회는 남가주에 있는 한인신학생들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게 되며 신학생이 주최로 열리는 교회연합기도회다.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 대표 박형준 목사(남가주새생명교회 담임)는 "다음 세대 이민 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메마른 가슴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 온 열방을 위해 통회하며 중보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 믿음의 용사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하시리라(마18:19-20)는 주제로 열리는 연합기도회는 △회개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남가주를 위한 기도 △세워질 리더를 그리고 가정들을 위한 기도 △헌신을 위한 기도 등의 색소폰 나부 기도회가 진행된다. 또 김익현 목사(마하나임 침례교회)가 설교자로 나서 10분간 설교



제3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를 준비중인 스태프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를 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의 특징은 헌신을 위한 기도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자들을 3-7명 단위로 묶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룹기도 시간이다. 박형준牧사는 "보통

기도회에는 개인의 기도는 안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기도회에는 남가주는 물론 전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외에 그룹기도를 통해 개인을 중보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정지운 목사의 저서 '정지운의 발자취' 출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정지운의 발자취' 출판 감사예배

정지운 목사의 이민의 삶에 화보로 엮은 '정지운의 발자취' 출판 감사예배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에서 열렸다.

박지훈 목사(성서교회 부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박용기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김병용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십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

데 40년간 이민생활을 해 온 오늘 행사의 주인공 정지운 목사는 그동안 변함없이 영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면 4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던 모세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정 목사의 40년의 시간을 보면 고난과 역경의 세월도 있었지만, 교회나 언론사를 위해 헌신적인 귀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양저 모양의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해 실제 투표에서 참여율이 낮은 청년층의 선거 참여를 진작시켜야만, '샌더스 돌풍'이 '폭풍'으로 진행될 수 있다. 크루즈는 아이오와에서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적은 주에서는 크루즈가 불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기때문에, 트럼프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이오와에서는 의외로 크루즈가 31%의 지지를 받았다. 한마디로, 트럼프 열풍을 주도한 블루칼라의 움직임이 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예측불가 미대선 경선...최종주자 4인방 압축

(3면에서 계속)

그는 크루즈에 대해 "지금까지 저 평가를 받았으나, (첫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 주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승리할 것"이라며 "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3월 1일 슈퍼화요일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덕분에 크루즈가 공화당 일각에서 보수적이며 당에 재앙이 되지 않는 대안 후보로 떠올랐다"며, "캠프가 모은 자금과 슈퍼팩 자금 모두 경선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지속할 정도로 두둑하다"고 덧붙

였다. 실리자는 2위는 루비오 의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존 워싱턴 정치권이 좋아하는 인물로 지난 몇 달간 주요 후원자들이 그에게 돈을 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확실하게 승리하는 초기 경합주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오와 주는 좋지 않고, 뉴햄프셔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좋지 않다. 다만 2월 23일 열리는 네바다 주 코커스가 가장 좋는데 그때까지 루비오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리자는 트럼프가 결국 3위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아이오와 주에서 2위, 뉴햄프셔 주에서 1위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다른 주자들을 배양한 것은"이라며,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앞의 2개주 결과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관측했다. 결론으로,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2016년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다. 테드 크루즈는 공화당 내 보수파와 복음주의적 가치를 공유할 후보를 찾는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낙승을 거뒀고, 클린턴과 샌더스 간에 펼쳐진 박빙의 경쟁은 민

주당 내 세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아마도 민주당, 공화 양당의 전당 대회까지는 누가 유력한 후보인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아이오와 경선에서 드러난 통계(5 numbers that explain what just happened in Iowa)만 봐도, 이러한 미 언론의 공론된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 민주당에서는 30세 이하의 유권자들이 84%라는 거의 몰표로 샌더스를 지지했고, 힐러리는 베이비부머와 노년층, 즉 65세 이상의 69%의 지지를 받아, 청년층에서의 부진을 상쇄시켰다. 따라서 노년층에 비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Galilee, Denver, Chicago, Bucks County, Bennington, Boston, and others.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동부교계 기사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라”

제 10회 동부개혁장신 총동문의 밤

씨즌 스마트폰 초중고급반 강좌

씨즌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52기)과 중급반(51기)가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

▲문의: 347-538-1587

한인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신학교에서 주관하는 동부지역 한인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이 오는 2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19일(금) 오후 4시까지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주성원교회(담임 육민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647-6334, (714)636-1722

눈오는 지도, 운동주 71주년 추모 공연

운동주 71주년 추모 공연이 2월 20일(토) 저녁 8시 뉴저지 참빛교회(55 Hillside Ave, Teaneck)에서 열린다.

▲문의: snowingmap@gmail.com

유, 초등부 전도사 청빙

미남침례교단 소속이며 뉴욕 우드사이드에 있는 새시대교회(담임 백장건 노기송 목사)가 유, 초등부 전도사님을 청빙한다.

▲문의: (718)592-4008, (917)699-6036

담임목사 청빙

PCA 소속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랄리벨장로교회(Raleigh Bethel Presbyterian Church: 4509 Bland Rd., Raleigh, NC 27609)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문의: jpyesorno.yes@gmail.com

뉴욕한마음교회 설립 3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예배

뉴욕한마음교회(담임 정양숙 목사) 설립 3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예배가 3월 6일(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309-8200

제 10회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총동문의 밤이 지난 8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지하교회실에서 열렸다.

회장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는 환영사를 통해 “신앙이 쇠퇴해가고 만인류적인 사회의 문제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받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



동부개혁장신 총동문의 밤을 마치고 참석한 동문, 교수, 재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를 힘쓰는 우리 동문들과 후배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를 통하여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의 인도로 환영사의 이어 기도 정경태 목사, 성경봉독 이경림 전도사, 찬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찬양대, 설교 장영준 목사, 헌금특송 소유영 소절화, 봉헌기도 손한권 목사, 격려사 이규본 목사, 신학교 소개 이종원 총무처장, 동문선교사 후원금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콜롬비아 선교사 뉴욕방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6일, 선교지 귀환 길에 뉴욕을 방문한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CDP) 김혜정 선교사와 만남을 가졌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올 여름 콜롬비아 선교지(멜갈)에 모기장과 물탱크 설치를 위해 단기선교를 가게 된다.

(기사제공: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이노비, 설날 맞이 나눔 이벤트

뉴저지 초대교회와 함께 은혜가든양로원 방문

문화복지 NGO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6일 오후 2시 뉴저지 양로원 은혜가든에서 뉴저지 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설날맞이 이벤트를 열었다.

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공연에는 뉴욕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이정은(Rina Kim)과 차형진(Hugh Cha)가 출연하며 맨해튼 음대에서 DMA 종인 피아니스트 안가영과 각종 풍물 수상에 빛나는 비올리스트 허담이 참여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엄선한 프로그램은 선보이고, 뉴저지 초대교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선물과 떡과 시혜 등을 준비해 고향을 향한 향수를 달래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양로원의 어르신들은 “너무 고맙고 예쁘다”며 좋아하셨고 은혜가든 양로원의 담당자 김재는 매니저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만 이렇게 설날에 찾아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린 건 이노비가 처음”이라고 전하며 “어르신들이 더 신나신 것 같다”고 덧붙혔다.

1부 콘서트에서는 엄선한 무명 팝송과 가요 만남, 그리고 동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준비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공연 후에는 간식과 선물을 나눠드리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세배 인사를 드리고, 다함께 세배를 드

자세한 문의는 (212)239-4438 나 이메일 enobinc@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에서 학장 장영준 목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주만 바라보라” 주제

동부개혁장신 2016 봄학기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가 지난 1일부터 “주만 바라보라”(대하20:사흘간 개강부흥회를 갖고 2016년도 봄학기를 개강했다.

된 종이 되라”(마25:21:30)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에는 학장 장영준 목사가 장학증서와 교환패를 수여했으며 동문회장 허윤준 목사가 동문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한세영 목사(위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로 첫날 “하나님 만 의지하라”(사46:8-13), 둘째 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라”(요9:31), 그리고 퀸즈장로교회(교인들과 함께 드린 마지막 날엔 “착하고 충성

또 마지막 날 예배 후에는 신임생 환영회가 열려 교수 및 재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 초대교회 봉사자가 간식을 나눠드리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Eastern (NY, NJ) Churches, listing various congregations, their pastors, and service times. Includes a central graphic with a dove and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헌신하라”

청년연합집회,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서

세리토스지역 청년연합집회가 7일 오후 2시30분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에 이어 강단에 오른 최순환 목사(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청년부 담임)는 삼하 7:1-9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음식을 하던 이웃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지난 1988년 당시에는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손해 보려 하지 않고 내가 주보다 받으려고 하고 챙기려만하고 경쟁의식이 가득 차있다”며,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채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



세리토스지역 청년연합집회가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겠지만 그러한 태도가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까지 번지는 데 문제가 있다. 주보다받는 뺏으려

는 이기적 습성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양상으로 퍼질 수 있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행복나눔 전도축제에서 장경동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리토스 총만교회에서 열린 최명자 사모 초청 이민자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찬양 콘서트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행복나눔 전도축제 성황 장경동 목사와 함께... 장순직, 김호민 목사도 강사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5일부터 7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5일 저녁 7시30분에 시작된 첫 날집회에서 '전도'(막1:35)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는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혼자가 아닌 두 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가 어색하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 말했다.

장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육을 먹으셨고 십자가에 달리 까지 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육을 얻어먹는 일이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정작 하늘나라에 가서 남편이나 언니 등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함으로 나 자신이 구원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했다.

장 목사는 또한 “헌금을 낼 때 전도헌금을 따로 마련해서 드리자,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위한 비품을 만들어서 사용하자. 전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여부는 그들의 몫이다. 전도는 안에서 안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며 영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 있다. 세상에서 교회당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복나눔 전도축제는 6일 저녁 7시30분, 그리고 7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4시에 열렸다. 또한 장순직 목사(문막드림교회)와 김호민 목사(관능교회)가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이민자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찬양 콘서트 세리토스 총만교회 주최 최명자 사모 초청

세리토스 총만교회(담임 김기동 목사)가 주최한 이민자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찬양 콘서트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30분에 열렸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콘서트는 40여 년 동안 찬양사역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시카고에 살고 있는 최명자 사모가 초청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You are my hiding place)’,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감

사찬송’, ‘너는 존귀한 자이다’ 등의 찬송으로 참석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

또한 오렌지카운티가 찬조 출연했으며 곡재필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회장 축도 후, 김종대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회장의 애찬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동 교회는 참석자들에게 작은 선물로 사랑을 나누고 이민자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콘서트를 마쳤다.

(기사제공: 세리토스총만교회)

랜디김 밴드 재즈 공연... 지베르니 카페

미주총신대학교 랜디김 교수와 베네딕사대학교 김경민 교수, 드러머 스타크 피그마이어, 그리고 보컬리스트 이은주 씨가 밴드로 나선 가운데 펼쳐진 재즈공연이 4일 오후 8시 지베르니 카페에서 열렸다.

브라이언 신 사장은 “한인타운에서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문화적 소통하는 하거나 예술의 향기를 공감하는 공간이 적었다. 카페에 랜디 김 교수가 음악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문화적 향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재즈 클래식을 커피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민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예슬 자매와 함께 ‘G 선상의 아리아’, ‘La Dona e mobile’를 재즈로 편곡하여 연주했으며 ‘I feel good’ 등을 연주했다.

한편 지베르니에서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저녁 8시 랜디김 교수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더넛트 파킹랏 콘서트 '2016 하모니'

더넛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 '2016 하모니'라는 주제로 20일(토) 오후 7시 거주영아학교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백석문화대학교 교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레이첼, 소프라노 클라라킴, 김희경, 베이스 이사효, 보컬리스트 린지리, 합창뮤지션 J SPARK, 그리고 코랄레움 선교합창단이다.

▲ 문의: (213)999-4909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나성제일교회는(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김문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21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213)388-7101

어린이전도협회 부활절 교사연합 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교사 연합 강습회가 20일(토) 오전 9: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반동안 CEF 강의실에서 실시된다. 등록비는 \$35.00

▲ 문의: (213)382-1544

힐링캠프기도원 집회

힐링캠프기도원(원장 이선자목사)은 허영혜목사(베네딕사기도원 원장)를 초청, 15일(월)-17일(수)까지 신유집회를 갖는다.

▲ 문의: (714)220-7660

스마트(SMART) 행복 문화교실 안내

남가주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목사)는 동포사회의 건강한 문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스마트 행복 문화교실을 열었다. 행복문화교실은 △전도훈련 행복교실 :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파노라마 말씀교실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00분 △바하르 합창교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어린이 합창교실 : 매주 토요일 주니어반: 오전 9시 30분, 시니어반: 오후 1시 참가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양과 댄스를 통해 아이들의 영성과 재능을 개발하며 뮤지컬을 통해 프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한다.

▲ 문의: (714)401-9874

동양선교교회 직분자 임직식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직분자 임직식을 14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323)466-1234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90일 새벽성경통독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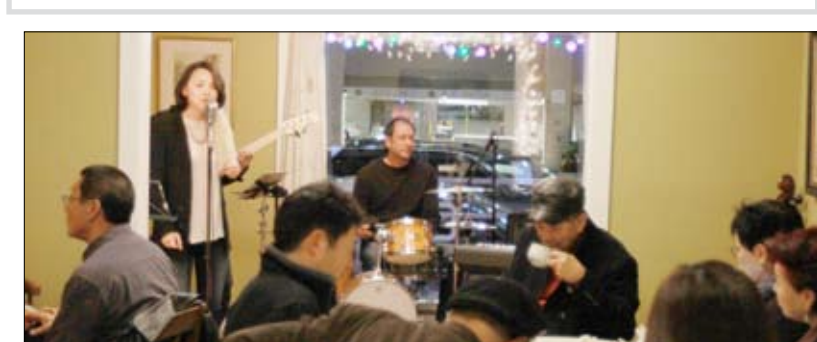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원장 주해홍 목사)은 90일 새벽성경통독강의를 13일(토)부터 5월14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30분(토요일은 오전 6시) 애나하임지역 사역원 강의실(1661 N. Raymond Ave #265, Anaheim, CA)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통근통독 저자인 주해홍 목사(ANC온누리교회 사역목사)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 문의: (714)726-8887

축복교회 김인경 담임목사 은퇴 및 김 그레이스 담임목사 취임예배

축복교회(20801 La Puente Rd, Walnut, CA)는 김인경 담임목사 은퇴 및 김 그레이스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28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909)762-8951, (626)482-7043



랜디김 밴드 재즈 공연이 카페 지베르니에서 열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학교: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 EM, 대학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례예배: 오후 2:00 영아권(영아-KO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E-mail: bethel@bkc.org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h3>등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stg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종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배스 건물),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침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pcia.com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침례예배: 오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인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효</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213)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교회</h3> <p>담임목사 : 정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p>	<h3>얼버인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일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미션센터)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침례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인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의: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일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p> <p>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새운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한글)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h.org Tel: (714)648-9259 Fax: (714)648-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한글)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국회굿관’ 일파만파... 이이재 의원 “행사개입 안했다”

교계, 사과재발방지 촉구 새누리당 대책 마련 나서

민의를 전담인 국회에서 열린 굿관(본보 2월 6일자 12면 참조)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은 3일 한 목소리로 굿관을 규탄하며 행사를 주선한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새누리

당도 이 의원에게 해명과 수습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병혁 목사는 “공공기관인 국회에서 굿관을 벌인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면 서로 “이 땅에서 미신행위가 없어 지도록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비전70사업단장 오치용 목사는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귀신을 부르는 굿관과 국운발표회를 통해 나라의 운명을 점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목사는 “새누리당과 이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21

“익산 할랄식품 단지 중단” 1000만인 서명운동

한기총 등 60여개 단체 세종정부청사서 기도회

익산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문영만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등 전국 60여 단체는 28일 오후 3시 세종시 국무조정실 정문 앞에서 ‘익산 할랄식품 단지 반대 특별기도회’를 열고 “정부는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할랄식품 단지 백지화를 위한 전국 10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할랄식품 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15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1월 프랑스 테러를 비롯해 9·11테러 등 수많은 테러의 90%가 무슬림에 의해 일어났고, 유럽 각국 정상들은 무슬림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이슬람화의 교두보가 될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통해 이슬람의 포

교 전략에 일조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익산시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60여 단체는 정부가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멈출 때까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문영만 대표회장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주제로 설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전희(익산을)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할랄식품 단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요가 없어 당장 조성할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쪼개진 총신대 운영이사회

예장합동 총회 측-총신대 측 각각 이사회 소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총장 김영우 목사)의 운영이사회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소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의 소집권한을 둘러싼 예장합동 총회 측(운영이사회 소집권이 총회에 있다는 입장)과 총신 측(소집권이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에 있다는 입장)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총회 측은 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본부에서, 총신 측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로 총신대에서 각각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열었다. 총회 측 운영이사회에는 총 134명의 이사 가운데 위임의사를 밝힌 19명을 포함해 69명이 참석했다. 반면 총신 측 운영이사회에는 53명만 참석,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하지 못했다.

총회장 명의로 소집된 총회 측 운영이사회에서 박무용 총회장은 “지난해 9월 제100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이사회를 열게 된 것”이라며 “총회의 결의에 불복하고 운영이사회를 이중으로 소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인 송춘현 목사 명의로 소집된 총신 측 회의에 참석한 운영이사들은 “이사회는 위임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의사를 밝힌 이사를 참석 인원으로 계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합법적 회의로 볼 수 없는 총회 측 운영이사회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제100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양측은 재단이사 교체와 정관개정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양측은 한때 ‘총회장과 재

단이사장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회 마지막 날 총신대 재단이사들과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총회 결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언서도 했다. 총회 이후 ‘합의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양측은 ‘대립과 갈등’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회 결의인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총신 특별교육기간 단축 및 수업료 인하’ 건 시행을 두고 총회 임원회와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즉각 이행’과 ‘이행 연기’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간담회로만 진행됐다. 양측은 이후에도 등을 돌린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 이사는 “손을 맞잡고 신앙적·신학적으로 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총회와 총신대가 정치에 매몰돼 방향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한 걸음씩 물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접점을 다시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일교회, 총회에 전병욱 목사 엄정 조사 촉구

한기총 이영훈 제21대 대표회장 취임예배

서울 용산구 청파로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와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에 전병욱(홍대세교회)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삼일교회 측은 2일 공개된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올바른 재판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술방방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중심에서 있는 삼일교회를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참고인’으로 간주해 배제하고, ‘전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발언했던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국원으로 참여했다”면서 재판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국원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문대(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도 “이번 재판은 2014년 중단됐던 재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시 ‘원고’ 지위를 가졌던 삼일교회 측이 동일하게 ‘원고’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노회 재

판국이 삼일교회 측에 기소위원이 누구인지,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등 재판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득훈 공동대표도 “평양노회는 이번 재판이 면피성 징계에 불과했음을 인정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예장합동 총회는 성경적 질서에 따라 전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일교회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삼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번 재판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을 알리고 총회에 상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이 되신다고 했는데, 좌편에서 그들이 되시는 것과 우편에서 그들이 되시는 것이 무슨 차이라도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앞은 동쪽을 말하고 뒤는 서쪽을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앞쪽은 남쪽을 뒤쪽은 북쪽을 가리킨다.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 아니라 동네 앞산을 말한다). 따라서 우편은 남쪽, 좌편은 북쪽을 가리킨다. 우편에서 그들이 도신다는 말은, 남쪽에 떠있는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다시 말해 정오의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이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 태양으로부터 그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다(사25:4).

그들은 히브리어로 tzel인데, 아래 구절에서는 “보호자”라는 뜻으

로 옮겨졌다. “그들은 우리 밭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민14:9).

그들은 폭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광야에서 폭양을 피할 그들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만들어주셨던 것이다. 아니 그들의 그들이 되어주셨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표현했던 것이다. 시편의 많은 구절들에서 그들이 보호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시91:1-2, 17:8, 36:7, 57:1).

세기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다시는 미신적인 무속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터즌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굿관을 벌이다니 황당하다” “부끄럽다.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나라가 귀신한테 복을 빌다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굿관을 개탄하는 논평을 냈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사무실에는 새누리당과 이 의원을 성토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전화가 잇따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김부성 대표 등이 나서 이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주최했다고 당에 보고돼 (김 대표와 여러 의원들이) 서둘러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한 학술발표회 성격으로 장소제공만 해준 것일 뿐, 이 의원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행사인 재수국은 이 의원실과 국회 사무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바로 제지당했다”면서 “제사상을 치우고 국 자체를 취소한 뒤 문화예술공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경위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으로서 종교 화합차원에서 합동 국운 학술발표를 위한 의례적인 장소제공만 했을 뿐, 주선한 적도 주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교계 ‘부천 여중생 사건’ 충격

참담당혹...“우리 모두 회개 나서야”

목사 A씨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이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목회자 양성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이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소속 목회자 130여명은 4일 아침 부천 원미구 원미동교회에서 월례 모임을 가졌다. ‘부천 여중생 사건’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았지만 회의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부기총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전국 각지에서 A씨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으며 한국교회 목회자를 싸잡아 비난하는 항의도 빚발쳤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가 ‘기도하면 딸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교단이 나 신학대는 신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참상이 알려진 뒤 크리스천으로서 참담함을 느꼈다는 목사로도 붓물을 이루고 있다. 박은현(경기도 구리 은혜로교회)씨는 “회 사동료가 ‘목사가 그랬다더라’고

했을 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다”며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명을 요청한 한 장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기독교인, 그것도 목회자를 통해 일어났다”며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로목사는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변하진 않지만 하나의 씩은 전체의 아픔이다. 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진열(경기도 고양 신도제일교회) 장로는 “신학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목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날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석현준(서울 중구 영락교회)씨는 “직장 동료들끼리 부천 여중생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데 법인이 목사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가슴이 딱 막힌 느낌이었다”며 “최근 전도하려고 기도하던 후배가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교회와 목사에 대한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교계 ‘부천 여중생 사건’ 충격

주변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쳐야 한다는 목사들의 중압감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자녀살해, 칼부림, 성추행 등 일부 목사들의 범죄가 잇따르는 원인 중 하나로 중압감에 인한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여기에 말씀과 삶의 분리, 윤리·의식 실종, 상담·치유 경시 등이 겹치면서 충격적인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좋은 모습’ 스트레스 시달리는 목회자들 영적 건강 점검 필요

이근복 크리스천아카데미 원장은 “목사들은 개인적 삶을 목회 현장에서 분리할 수 없다보니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며 “가정폭력이나 성적 일탈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조계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도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표출할 곳을 찾지 못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속에서는 악마

가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황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붕괴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한국사회 지도자들 중엔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결핍된 이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규범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를 일으키

을 느끼곤 하는 목회자 부모를 치유하고 상담하는 사역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사무처장도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기도’로 풀라고 했지만 이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단이나 노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의현 연세로템정신과의원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교인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가 맡았던 교회 교인들과 가르쳤던 신학대 학생들도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

해당 교단이나 신학대, 한국교회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목회자라는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반화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A씨가 목회자라고 해서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슬람중앙회 “익산에 무슬림 30만명 거주할 것”

관계자 “개인적으로 올린 글” 국민일보 취재자 자료 삭제

한국이슬람중앙회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무슬림 가족 30만명이 거주할 익산단지 전경’ 보도자료. 3일 국민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삭제했다고 미션라이프 인터넷님이 보도했다.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건립된다더라 무슬림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공식 해명과 달리 한국이슬람중앙회는 최소 30만명의 무슬림이 익산에 거주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3일 단독 입수한 한국이슬람중앙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슬람교 한국 총본산인 이 기구는 ‘내산 할랄식품 클러스터에 무슬림 가족 30만명이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한국이슬람중앙회는 지난해 1월 21일 ‘무슬림 가족 30만명이 거주할 익산단지 전경’이라는 보도자료를 올리고 “전북 익산시(시장 박경철)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할랄식품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내

외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적극 홍보했다.

‘대한지방자치뉴스’가 보도한 익산시 국가 할랄식품 클러스터 조감도와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올려놓았다. 한국이슬람중앙회측은 국민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자진 삭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MOU는 농업 및 할랄식품 분야에서 UAE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첫 번째 MOU 체결 사례로 주요내용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할랄푸드파크 개발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UAE측의 할랄식품 전문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할랄식품 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사에 ‘30만명의 이슬람 가족이 거주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슬람중앙회는 농림축

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에 할랄식품 전용단지가 설립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최소 30만명의 무슬림이 들어올 것으로 자체 예상했다는 뜻이다.

보도자료를 올린 한국이슬람중앙회 관계자는 “그 글은 인터넷 블로그 여러 곳에 올라와 있는 글을 모아 올린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올렸는데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익산에 무슬림 가족 30만명이 온다는 것은 100% 사실무근”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요도 없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다. 익산도, 전북도, 정부도 (할랄식품단지 조성) 생각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만약 지역민이 찬성하고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하다면 신중한 방향으로 (단지 조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슬람중앙회는 서울, 부산, 경기도 광주 안양 부평 안산 파주 포천 김포, 전북 전주, 광주, 대구, 대전, 경남 창원, 제주 등 전국 15개 이슬람 사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서울 용산구 우산대로에 있다.

선교의 창 (48)

세계선교의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할 선교사 자녀(MK)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 미래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진지한 태도와 함께 앞으로 천년, 만년 후에 오실 것을 대비해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선교와 직결되어 있다. 그 날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편광이 전파될 때"(마24:14)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지구촌에는 약 2/3의 절대 인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선교확장 속도라면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그렇다면 오늘 선교의 주역들이 물러나면 누가 이 사역을 계승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 그 여파로 선교 헌신자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장기보다는 단기, 그리고 젊은이보다 고령화가 추세이다.

큰 집은 한 순간에 지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대를 이어 지어야 한다. 지금 1세대가 아무리 힘 있고 사역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바톤을 이를 차세대 주자를 데 비시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이든 맥이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인교회는 열방을 향해 수평적 선교를 하는 것 못지않게 한편으로 내일의 기업을 이룰 자를 위해 수직적 선교를 해야 한다. 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자녀세대요, 그 중에서도 MK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교사 부모들을 통해 예배해 놓으신 세계선교의 희망이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MK들의 실태

MK란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를 약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부모가 선교사로서 해외로 이주해 타 문화권에서 자라났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KWMA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말로 파송된 한인선교사는 171개국에 27,205명이다. 그리고 MK들은 18,543명이다. 적지 않은 수다. 이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이들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

다. 정체성의 혼란, 현지적응 실패, 언어습득 어려움, 우울증, 수시로 바뀌는 생활환경, 극심한 재정난 등에 다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심한 경우 탈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자는 그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 선교하면 좋겠다고 소리치지만 실제 헌신자는 많지 않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에 의하면 한인MK들중 2012년까지 2.3%만이 선교사로 헌신해 타 문화권으로 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대다수 MK들이 한참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MK들은 차세대 세계선교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력자원이다. 그들은 한민족의 정서와 신앙의 바탕 위에서 현지에 토착화되어 있다. 교회는 헌신된 MK들을 입양해 선교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MK들의 열악한 환경

MK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원인은 첫째로 가정환경에 기인한다. 부모 된 한인 선교사는 거의 가 일 중심적이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오직 현지의 사역을 위해 쫓기듯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그 잠재력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 된 선교사는 자기 자녀 중 적어도 한명이라도 풀타임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선교적 DNA가 전가되도록 힘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생활환경에 기인한다. 이들은 이질적인 타 문화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린 아이 때부터 현지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 나라 유치원이나 학교에 강제로 밀어 넣어진다. 한 가지 언어도 정리가 안 되는데 한국어, 현지어, 영어라는 3중 언어에 시달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이들과 어울려야 하는 환경은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셋째는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 선교사는 희생이 미덕이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도 부모들처럼 희생해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 함몰되어 있다. 행여 MK들이 도덕적으로 모나거나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쉽게 눈총을 받기 일쑤다. 선교사는 성인이며 헌신되었기에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MK들은 아직 어리며 헌신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MK들에 대한 선교적 고찰

"너는 MK이기 때문에 네 부모처럼 무조건 선교지로 가야 한다"라고 몰아붙일 필요가 없다. 이는 비 성경적이다. 인간의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과 은사를 띠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의 진로는 자라온 환경과 무관치 않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다. MK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선교사로서 소명을 기회와 준비됨이 크다. 선교사 부모를 두고 타 문화권에서 자란 것이 어찌 우연이라! 과연 하

잡히게 키우는 것이다. 이것은 수직선교의 일환이다.

둘째는 파송 선교회의 역할이다. MK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없는 교육적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다. 모국방문 추진, MK 수양회, 여타 자녀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 등이다.

셋째는 후원이나 자매 교회의 역할이다. 그것은 MK들을 미전도 종족 입양하듯 일정기간 입양하는 것이다. MK들은 선교사들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혈통을 초월한다.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국제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짐을 나누어줄 때 하늘에서는 환호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MK들을 위한 교회의 대책

좋은 일꾼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고의 수고를 곁들여 투자해야 한다. 한국 피겨의 여왕인 김연아 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일찍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학교와 국가차원에서 가능성을 보고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네경기 입상자 이상 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선교과업을 이를 차세대 일꾼들을 키울 것인가? 첫째로 선교사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적어도 고교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신앙인, 한국인, 현지인으로서 균형

수 있도록 교회가 짐을 나누어줄 때 하늘에서는 환호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맺음 말

화란의 대표적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그는 순간적 지구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선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선교사 파송 2위국이 되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번국점으로 젊은이들 중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가 별로 없다. 이 흐름대로라면 우리의 선교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차세대 선교의 주역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모자리관이 여기 있다. 이들은 2만 명에 육박하는 예비 MK들이다.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금으로 단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MK에 대한 간의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이란 3부에서 탈피해 그들과 함께 선교의 백년대계를 꿈꾸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스와지랜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은 때 늦은 강추위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이곳 스와지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로 지내기가 편했지만, 가뭄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이 모두 모자라 비가 충분히 내려주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기간을 더욱 건강하게 지내 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감사하게도 대전 코스모 내과에서 1달간 관려해주시신 장원일(순환기내과) 선생님이 1월 중순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부하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고 실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심초음파와 함께 조금은 더 나은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보사부 산하인 파랄라재단(남아공으로 환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주관하는 단체)과 협약을 맺어서 가능한 부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 1분정도(1년에 4번 정도)로 방문해 주실 순환기내과 선생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찾아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와서 통역도 하고 온갖 일을 맡아 수고해준 전현수군도 이제 8월에 미국대학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잘 마친 다음에도 우리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의료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우며 4주간의 임상실습을 위해 이번에 스와지와 말라위를 다녀간 김기덕(전북의전원 3년)군처럼 한국의 많은 기독의 학생들이 현지체험을 하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파랄라재단에서는 소화기내시경을 해야 할 환자들을 우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기적으로 3달에 1번(2주내지 4주) 정도로(1년에 4번) 방문해 주실 소화기내과 선생님이나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 계셔야 가능한 일인데 고신대 내과에서 파견하기로 했던 서광일 선생님은 과 사정이 바뀌어서 2월에는 불가능하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약을 미루며 그 재단도, 우리 SwaKor메디칼 센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할 현지의 일반 의사를 파트타임으로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스와지뿐 아니라 이웃의 모잠비크나 남아공의 지역주민들과 교민들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지난해처럼 수술 팀을 구성해서 오시게 되면 이 또한 귀한 동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3월 중순의 인공관절수술팀, 7월 중순의 백내장 수술팀, 부인암수술팀, 8월 초의 TUR 수술팀, 그리고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형외과수술팀, 혈액투석을 위한 shunt 수술팀, 불임치료팀 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 보사부에서도 더 많은 분야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임시면허 발급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영교수(sykim@cnu.ac.kr, 010-4408-7154, 070-7574-1652 스와지사용; 김경진부장(010-2743-8430)에게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스와지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이나 소아 선천성심장병 검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모으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금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자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평강으로 충만한 나날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새로운 상주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2. 단기사역자(2-4주)들을 보내 주시기를
3.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4. 간호부분, 의료기사부분, 행정부분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우아프로젝트 드림 / sykim@cnu.ac.kr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세계종교 문화뉴스

안타깝지만 2016년 새해도 테러와 환경재난 뉴스로 시작하게 된다. 연초에 일어난 인도네시아 테러 소식으로 인한 긴장감이 한 국에까지 전해진다.

지난 2천년 역사 속에서 과격종교 그룹이 근래와 같이 이토록 무서운 살인극을 벌인 적은 없었다. ISIS는 전 세계를 향하여 테러를 선포하였다 한국도 테러 가시권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한다.

무슬림 학자들 또한 아랍세계가 저유가,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종파분열과 대립, 내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할랄(halal) 문제에 대한 이슬람 찬반 논쟁을 들여다보니 그 수준이 심각하다. 종교다원주의와 대화 그리고 관용을 내세우며 이슬람 포용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다원주의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과격 이슬람을 향하여는 종교 하지 않는다. 평범한 무슬림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전통 이념 가치관을 흐르는 종교 집단을 수용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기독교는 세속주의를 반대한다. 하지만 대(對) 무슬림 정책에서는 프랑스식 "국가 세속주의"(state secularism) 정책을 지지한다. 프랑스는 엄청난 테러를 경험하면서도 최근 더욱 강력한 국가 세속주의를 천명하였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공장소에의 히잡은 금지하였다. 사회와 국가의 기존 일체감을 형성하는 종교, 가치관, 이념, 전통, 생활양식을 흔들면서까지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스스

로 국가(國基)를 흐르는 것이다. 이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한 다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기독교 박해의 현황만 살펴봐도 이슬람은 종교다원주의 현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종교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1. AQIM의 부르키나파소 호텔 인질극 발생 최소 20명 사망

지난 1월 15일 아프리카 서부 내륙 국가인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한 인질극으로 최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 미국 선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부르키나 파소에서 난민 고아원을 운영하던 선교사 마이클 리더링은 자원봉사 그룹과 만나고자 와가두구 카페를 방문했다가 테러에 휘말려 사망했다.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악인들이 죽일 수 있는냐고 통분하였다.

금번 테러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IM)와 지하디스트 그룹 알무라비툰(Al-Mourabitoun)이 함께 벌였다. 알무라비툰은 악명 높은 공포의 인물로 '애꾸눈 해적왕'으로 알려진 알제리 출신 목타르 벨목타르가 이끄는 집단이다. 벨목타르는 AQIM의 전신인 살라피스트 선교전투그룹(GSPC)을 공동 설립했고 AQIM의 지휘관으로도 활동했다. 폭발물 사고로

왼쪽 눈을 잃었지만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밀수, 납치, 반란 등을 주도해 서방에서 가장 잡고 싶은 테러범으로 꼽힌다.

하루 뒤인 16일에도 부르키나 파소 오지에서 40년 이상 의료봉사를 해온 호주인 80대 부부가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보이는 괴한들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줬다. 호주 퍼스 출신인 의사 켈 엘리엇(81)과 아내 조셀린 부부는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지보 인근 자택에서 납치됐다. 부부는



1972년 말리 점령 지역인 지보에 병원을 설립해 평생을 지역 의료 발전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다. 현재 부부는 AQIM의 분과인 사하라 에미리트(Emirate of the Sahara) 소속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억류 중이라고 말리 무장 세력인 안사르 디네가 전해왔다.

2. "기독교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라 같다" : 복음주의 신학의 위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칼리지가 무슬림 공동체에 종교적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강립절 기간 히잡을 착용하겠다고 선언한 흑인 여교수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기독교인인 래리샤 호킨스(유일한 소수인종 아프리카 아메리칸)는 휘튼칼리지의 정치학 교수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크리스천과 무슬림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발언 내용이 신학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한 학교 측이 그녀에게 공무 휴직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수회는 공무 휴직 처분 철회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학생들 또한 대학 측 입

장에 동의하는 그룹과 호킨스 교수를 지지하며 복직을 요구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실망스러운 사실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30% 이상이 호킨스가 주장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코란은 예수님의 신성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 원리를 전연 부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 신학, 교리, 신앙고백 부재의 복음주의의 미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한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나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호킨스 교수는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총기 사

건 이후 더욱 눈총을 받고 있는 무슬림에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성탄절까지 학교에서는 물론 대외 행사에 참여할 때와 연휴에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갈 때, 교회에서도 히잡을 두르고 있었다고 선언했다.

3. 이슬람을 더 좋아하는 니체?

19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경건한 루터교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이슬람 전문가가 "니체와 이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편집 출간하였다. 내용은 니체가 완전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일신을 믿었는데 이슬람을 더 지지하고 기독교를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니체의 이러한 이념은 대단히 예언적이다(?). 2차 대전 후 이슬람 국자들은 무신론을 거부하면서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타협, 사회주의적 경제를 도입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도 러시아는 시리아의 이슬람 독재자를 지지한다. 한국에서도 아프간 사태 이후 이슬람과 좌파들이 제휴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4. ISIS, 전 세계를 테러의 대상으로 선포 : "불경건한 자의 대열에 선 자들은 우리들의 칼의 타깃이 될 것이다"

금년 초 ISI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선포하였다. 당시 비디오 영상은 영국 수상 카메룬을 집중 조명하면서 자막을 통해 "불경건

한 자의 대열에 선 자들은 우리들의 칼의 타깃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The Strait Times, Tuesday, January 26, 2016: 14).

테러가 날로 증가하는 동남아 구라과 등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테러가 점점 동남아로 이동하는 현상은 작년에도 계속되었다. 2016년이 시작되자마자 1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 테러로 일어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월 29일에는 호주에서 테러 위협으로 4개 학교가 일시 휴교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1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상과 장관들이 모여 테러에 공동 대응하는 긴급회담을 가졌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ISIS그룹은 말레이시아어로 된 협박 비디오를 제작, 이 지역에 배포하고 있다(The Strait Times, Tuesday, January 26, 2016: 6). 동남아는 지금 테러 훈련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동남아 12,000개 섬에서 많은 테러조직들이 훈련을 하지만 해당 국가의 공안이나 군대의 손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령 검거 후 투옥이 된다고 하더라도 테러분자들은 감옥에서 SNS를 통하여 '테러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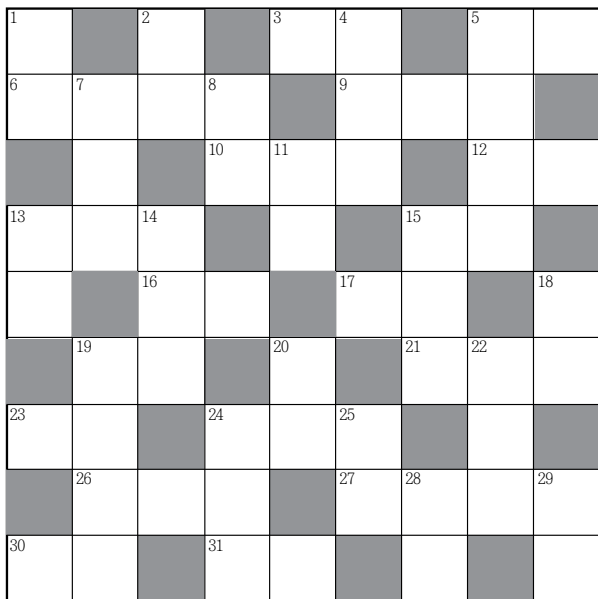
1월 중순 인도를 방문한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은 모디 인도 수상에게 공동으로 대테러작전을 수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인도나 프랑스 모두 테러대상국가로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다.

무슬림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금년 아시아 정상회담 2017년 세계 럭비 선수권 대회,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대책에 부심하며 벌써 대응훈련연습에 돌입했다.

hjjun01@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15)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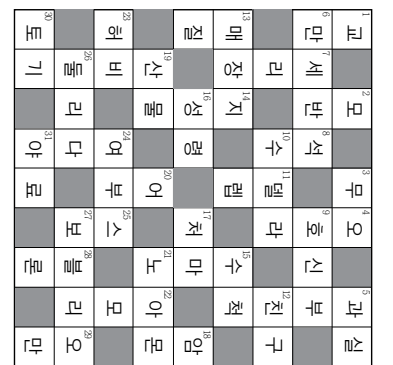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3. 잘못됨이 없음. 성경말씀이 OO한 진리요(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
5. 잘못이나 허물(창37:2).
6. OOOO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찬송가 중).
9.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는 신분의 부차(사3:20).
10. 에브라임 아들로 조상이 된다(민26:35).
12. 오래 두고 정답게 사귀어 온 벗(창26:26).
13. 장사 지내 물을 땅(창23:4).
15. 몸이 여위어서 강과름(시6:2).
16.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마3:16).
17. 지붕의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왕상7:9).
19.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레25:19).
21. 헬라인에게는 데베스라고 알려져 있는 애굽의 도시(나3:8).
23. 쓸데없는 비용을 씀(마26:8).
24.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동시에 또한 가나안 7족 중의 한 족속의 이름도 된다(창15:21).
26. 둘러싸이다(창23:17).
27. 멜리데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하는 것을 바울이 고쳐주었다(행28:7,8).
30. 진흙으로 만들어 깃발을 울리지 않고 구운 그릇(레6:28).
31. 까닭 없이 트집을 부리고 마구 떠들어대는 짓(삼상18:10).

<세로 푸는 열쇠>

1. 제 스스로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뽐내어 방자함(출18:11).
2.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함(삼하15:31).
4. 슬픔이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삼하1:19).
5. 흠을 된 여자 친척(딤후5:16).
7. 세무행정에서 종사하는 관리의 우두머리(눅19:2).
8. 돌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삼하5:11).
11. 유대 남쪽에 있던 성(수15:24).
13. 매나 방망이로 때리는 일(막13:9).
14. 지극히 거룩한 물건(출30:29).
15. 광택이 아름다운 석영(石英)의 하나(욥28:16).
18. 요단강 동편 모압의 북편인데 그 수부는 랍배(삼하11:1).
19. 비둘기 과에 딸린 새. 전신은 담회색, 머리, 목, 배는 회백색(창15:9).
20. 물고기를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욥41:6).
22. 이 민족을 가리켜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고 했다(암2:9).
24. 다윗왕 당시에 제사장 변역 중 제2반의 수령(대상9:10).
25. 소발의 자녀(창36:23).
28. 다윗의 용사 헬레스의 출신지(대상11:27).
29. 유다의 자남. 형이 죽은 후 그의 처 다말을 취하여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일을 거부하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창38:1-10).

십자말 정답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교회/매장/기타단체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3)

7.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7)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가치론 중에서도 윤리학(Ethic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리학(Ethics)이란 간단히 말해서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음과 선함의 원리, 기원, 발달, 및 본질을 상고하며, 윤리학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 판단의 이슈들 중에서(가치론), 특별히 "어떠한 삶의 상황들, 행위들, 사고방식들, 및 삶의 방식들 등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러한가?"를 묻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며 인간이

우리의 다음세대와 새로운 신자들을 보편적으로 옳고 선한 삶을 살도록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이 올바른 윤리관(윤리학)을 정립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한 실행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윤리관(윤리학)을 정립하도록 돕는 일은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불변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

함하며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를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의 존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겉으로는 "인간 평등"의 가치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대한 보편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 많고, 따라서 여전히 계급 및 인종차별이 특이나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렇지, 선한지 악한지 성경에 비추어 고민하고 평가하는 일 없이 그렇게 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규범, 의미, 선택, 가치를 규명하는 것
선악에 대한 보편적 판단근거를 성경에 둔 성경적 윤리관 가르쳐야

마땅히 살아야 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인간의 개인적 및 사회적 삶에 있어서 무엇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행동 규범들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윤리학은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인간간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범, 의미, 선택, 및 가치를 규명하는 일이 윤리학에 있어서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따지는 일반적인 통념, 즉 흔히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가 반드시 언제나 상치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상당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식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의 기준들인 도덕은 사실은 사회적 관습이며, 이에 많은 부분 상대적이거나 상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위에서 살핀 바 "윤리학"은 상대적이거나 상황적인 사회적 관습이 아닌, 이를 초월하는 보다 상위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장소, 사회, 상황, 시간 등에서만 옳고 선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옳고 선한 것에 관한 담론이 바로 윤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존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다음세대들과 새신자들에게(물론 기존 신자들에게도) 교육하고 내면화 시켜야 하는 윤리관(윤리학)은 바로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대한 보편적 판단의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으며, 따라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대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의 기본 틀이며, 성경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구체적인 보편윤리들이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때때로 이는 "기독교적 윤리관/윤리학" 혹은 "기독교 윤리"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해석상의 스펙트럼이 넓은 관계로 오후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증거 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대와 장소와 상황과 사회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대한 보편적 가치 판단 기준, 즉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혹은 노예해방 이전의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이 통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삶의 모습 저변의 도덕은, 오히려 사람들 간에는 각자의 사회적 및 문화적 자리가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므로 인간에 대한 차별이

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 및 한인 기독교인들은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교묘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인종차별을 당해왔으며, 우리 또한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에 대해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말합니다. 이는 한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인 보편적 가치 판단 기준은 인간평등임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교회교육에서 이를 책임 있게 정립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 자신도 이를 제대로 내면화하고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윤리적 타락 및 둔감성, 그리고 인면수심의 범죄들까지 가장 상위의 성경적 보편 윤리의 잣대 는커녕 일반 성도들 및 심지어 비신자들도 준수하는 최소한의 도덕 및 법들의 잣대로도 이해하고 용서하기 힘든 일들에 목회자들이 연루되어있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의 내면화 및 정립이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또한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모든 기독교 교육—은 이를 공고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성경적 윤리관(윤리학)은 한인교회 기독교교육(모든 기독교 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 단단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삼상20:1-4)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집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다윗 자신의 생명이 사망에 문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마나웃에서 도망해 요나단을 만납니다. 사실은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사랑하는 친구,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에게 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윗의 낙담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전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진실하게 다윗을 돕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위험한 순간들과 답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우리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 제삼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삼상20:5-6)

그렇게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한번 물려오게 되면 믿음은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십자가가 못 박은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요 죄와 사망에서 이

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 다 감당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만 그 앞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수 네 중에게 인자히 행하라(삼상20:7-15)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이 자꾸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요나단에게 확인 대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확인의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움에 빠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오

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할 때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사51:12).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평강 중에 평강을 누리시면서 "나에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삼상20:16-23)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의 사랑은 항상 신앙으로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던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요? 요나단은 다윗과 끝

까지 신앙 안에서 우정을 지킨 후에도 아버지와 원수가 되거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된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다윗과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랄 수 없습니다.

금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삼상20:24-41)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지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보충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와 이별을 하는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삼상20:41-42)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사랑은 처음이나 나중이 똑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았습니다. 평생에 목회를 하고 마칠 때 행20장의 사도바울과 예베소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헤어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목을 꿸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목을 껴안고 입 맞추며 주님 앞에서 만날 날을 바라보며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 자랑이요 생명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화동2동 520 (142-808)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21 291(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정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종교개혁 500주년(1517-2017) 기념

1차 등록 마감: 2016년 3월 31일(화)

1차 등록예약금: 1,000달러/1인당

제3차 종교개혁 발상지 유럽 학습여행

런던-옥스포드-파리-옹프라우-제네바-취리히-보름스-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에어프루트-아이제나흐-비텐베르크-드레스덴-프라하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탄생기념일입니다. 오는 2017년은 개신교가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크리스천 위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제3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을 실시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낸 마틴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츠빙글리, 존 녹스, 그리고 안 후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행적을 찾아다니는 이번 학습여행을 통해 개신교탄생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반 여행자들이 찾지 않는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 선택 여행 루트이기 때문에 맞춤형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일정: 2016년 9월 11일(주일) - 9월 23일(금) 총 12박 13일

참가경비: 3,900달러 문의전화: (213)383-2345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 앞.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써 붙인 곳으로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정
1일 9/11(일)	LA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집결, 런던행 항공기 탑승
2일 9/12(월)	런던	전용버스		런던 도착 후 트라팔가, 런던 브리지 등 관광 후 석식, 호텔 휴식
3일 9/13(화)	런던	전용버스	08:00	(영국의 종교개혁 관련 순례) 울더스 게이트, 요한 웨슬레 생가, 교회, 번들 필드, 옥스포드 대학 등 순례
4일 9/14(수)	런던 파리	전용버스 유로스타	08:00	버킹엄궁(근위병 교대식), 대영 박물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빅벤 등 관광 후 유로스타 편으로 파리로 이동 후 호텔 휴식
5일 9/15(목)	파리	전용버스	08:00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샹젤리제, 콩코드 광장, 노담당 사원, 세느강 유람선(유선) 등 관광 후 호텔 휴식
6일 9/16(금)	파리 제네바	기차 전용버스		제네바 행 기차 탑승, (칼빈의 종교개혁관련 순례) 칼빈이 목회했던 St. Pierre교회, 목사관, 바젤대학, 종교개혁 기념비, 레만 호수 등 순례 후 호텔 휴식
7일 9/17(토)	제네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인트라켄으로 향발, 유럽의 지붕 옹프라우(산악열차) 등정 후 취리히로 이동 후 휴식
8일 9/18(일)	취리히	전용버스	7:00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뮌스터 교회, 사갈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 윈스티 교회 순례 후 하이델베르크로 이동, 하이델베르크 고성, 대학가 등 순례 후 보름스(마틴루터가 보름스 종교재판을 받았던 곳, 순례 후 호텔 휴식
9일 9/19(월)	프랑크푸르트 아이제나흐 에어프루트		7:00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괴테하우스, 리미광장 순례 후, 아이제나흐로 이동, 루터 생가, 바르부르크 고성(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 바하 관련 순례 후 에어프루트 도착 휴식
10일 9/20(화)	에어프루트 라이프치히 비텐베르크		7:00	마틴루터가 대학을 다니고 수도생활을 시작한 에어프루트 순례, 에어프루트 동, 크레머 다리, 피테스부르크 요새 등 순례 후 라이프치히로 이동, 바하가 지휘자로 근무한 St. Thomas교회, 통일 독일의 시발점인 쉘링시위로 유명한 St. Nicolas교회 순례 후 비텐베르크로 이동, 비텐베르크교회(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곳), 마틴루터와 열광하던 동상, 마틴루터 생가, 박물관 순례 후 호텔 휴식
11일 9/21(수)	드레스덴 프라하		8:00	동부독일의 파라라 물리는 드레스덴 관광 후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이동, 석식후 아름다운 프라하의 야경 관광 후 호텔 휴식
12일 9/22(목)	프라하		8:00	(안 후스 종교개혁 관련 순례) 안 후스 기념(베들레헴)교회 순례, 프라하 고성, 대통령궁, 베타성당, 카를교, 베히라프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라하 관광 후 휴식
13일 9/23(금)	프라하 LA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프라하 출발 LA 행 항공기 탑승. LA 도착 후 SWEET HOME 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제3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 신청서

신청인 (한글) _____ (영문) _____

현주소 _____

Tel _____ E-mail _____

직장 _____

국적 _____

여권번호 _____

동반자 (한글) _____ (영문) _____

신청인 서명 _____ 동반자 서명 _____ Date _____

▶ 참가비 지불 및 취소규정
-지 불: 신청시 예약금 1,000달러
출발 30일전-완불

-취소규정: 출발 30일전 해약-예약금 제외
출발 14일전 해약-항공료 제외
출발 6일내 해약-No Refund

신청서 보낼 곳: 크리스천 위클리 3700 Wilshire Blvd. #755, Los Angeles, CA 90010
주관 : 크리스천 위클리

- 유의사항
1. 참가 신청서 성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이름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 참가신청서를 요청하시면 메일해 드립니다.
 3. 가주를 제외한 타주 참가자들에게는 항공료등과 짐걸지를 따로 알려드리오니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체로 참가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에는 직접 찾아가 여행설명회를 갖습니다.